이스라엘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6
외교관계 / 7
주한주재국기관 / 9
한국과의 주요이슈 / 10

II. 경제

경제정책 / 1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2
주요 산업 동향 / 13
정보조사 자료원 / 17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17
무역통계 / 18
투자통계 / 22

IV. 출장가이드

기후 / 23
시차.근무시간 / 25
도량형 / 25
출입국.비자 / 26
환율.환전 / 28
물가정보 / 29
교통.통신 / 31
호텔.식당 / 33
관공서 관행 / 36
공휴일 / 36
여행시 유의사항 /38
유용한 연락처 / 39
관광명소 / 41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3
수입규제제도 / 50
관세제도 / 52
주요인증제도 / 53
지적재산권 / 53
소비자보호제도 / 55
교역관련 국가기관 / 55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5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6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1
운송 / 62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3
유형별 분쟁사례 / 64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5**
우리기업 투자동향 / **65**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6**
투자인센티브 / **68**
타당성조사 / **69**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69**
입지선정 / **70**
공장 설립 / **70**
투자관련 정부기관 / **71**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1**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72**
조세제도 / **74**
외환관리 / **75**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76**

Ⅰ. 국가일반

1.국가개요

국 명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위 치	중동, 지중해 동부연안 (최북단 헤르몬산이 마라도와 위도상 동일)
면 적	22,052㎢ 골란고원 포함,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에게 이양한 요단강 서안 지역 제외한 면적(이스라엘 자료 근거) 그러나 CIA와 EIU의 Country Profile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일 전쟁과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점령한 가자지구, 요단강 서안지역, 동예루살렘 및 골란고원을 제외한 이스라엘 국가면적을 20,325㎢로 명시해놓고 있음. - 대구 경북(19,904㎢) 보다 조금 더 큼 -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2,224m) - 가장 낮은 곳: 사해(-416.24m, 2002.12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갈릴리: -214.34 - 가장 긴 강: 요단강(252km) * 직선거리는 100km - 가장 큰 호수: 사해(310 ㎢), * 갈릴리호수(164 ㎢)
기 후	지중해성 기후(고온건조, 11-3월 우기, 이하는 연평균 기온, 섭씨) - 텔아비브: 1월 9.6~17.5, 7월 23~29.4 - 예루살렘: 1월 6.4~11.8, 7월 19.4~29 - 에일랏: 1월 9.6~20.8 7월 25.9~39.9
수 도	예루살렘(Jerusalem) - 이스라엘 독립 시 UN은 예루살렘을 International Zone으로 발표 - 이스라엘 주재 각국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소재
인 구	704만 명(2006년 7월 31일 기준) 인구밀도: 299명/㎢
도 시	예루살렘(724천명), 텔아비브(1,160천) 하이파(830천), 브엘세바(493천)
민 족	유대인 534만 명(76%), 아랍인 139만 명(20%), 기타 31만 명 * 전세계 유대인 수: 1,329만 명 (미국거주 591만 명)
언 어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아랍 소수민 공식 언어), 영어(상용어), 러시아어와 불어(최근 귀환한 러시아계 및 프랑스계 유대인 사용)
종 교	유대교(76%), 이슬람(19.5%), 기독교(2.9%, 주로 아랍인), 드루즈(1.6%)
건국일	1948. 5. 14 (히브리력 5708년)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대통령 Mr. Moshe Katsav (2000.8월 취임) 총리: Mr. Ehud Olmert
입법부	단원제

2.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조직

이스라엘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갖는 내각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수장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업무는 대개 의전과 의례적인 것이다. 대통령직은 국가의 통합과 주권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인 크네셋(의회)은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일원제이다. 크네셋은 회기 중 15개의 상임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크네셋 의원들은 매 4년 마다 전국적인 총선을 통해 선출된다. 행정부(내각)은 국내외 사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는 총리를 수장으로 하며 또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1) 행정부

이스라엘은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임기 5년)은 국가를 대표하나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상징적 존재이다. 행정부는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총리를 포함한 각료로 구성된다.

이스라엘의 정부 부처 및 담당장관 다음과 같다. (2006. 8. 31 기준)

- ○ 환경부 (Gideon Ezra)
- ○ 총리실 (Ehud Olmert)
- ○ 이민부 (Zeev Boim)
- ○ 재무부 (Avraham Hirschson)
- ○ 국방부 (Amir Peretz)
- ○ 보건부 (Yaakov Ben-Yizri)
- ○ 외무부 (Tzipi Livni)
- ○ 교육문화스포츠 (Yuli Tamir)
- ○ 농업부 (Shalom Simhon)
- ○ 산업무역노동부 (Eli Yishai)
- ○ 관광부 (Yitzhak Herzog)
- ○ 기간산업부 (Binyamin Ben-Eliezer)
- ○ 내무부 (Roni Bar-On)
- ○ 법무부 (Haim Ramon)
- ○ 사회복지부 (Ehud Olmert)
- ○ 건설/주택부 (Meir Sheetrit)
- ○ 과학기술부 (Ofir Pines-Paz)
- ○ 교통안전부 (Shaul Mofaz)
- ○ 정보통신부 (Ariel Atias)
- ○ 국내치안부 (Avi Dichter)

이스라엘은 전국을 편의상 8개의 District로 나누고 이를 다시 28개의 Sub district로 나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이와 달리 인구 2만 명 이상의 Municipality(68개), 인구 2,000-20,000명의 Local Council(145개), 기타 인구 2,000명 이하와 키부츠, 모샤브, 정착촌 등 Regional Council(54개) 등으로 나누며, District와 Regional Council은 대등한 행정기관이다. (상세내용은 행정구역편 참조)

2) 의회

입법부는 1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Knesset)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회는 12개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50여 개의 정당이 있으며,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일이 많다. 의원선거 방식은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여 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 받는다. 선거권은 만18세 이상, 피 선거권은 만21세 이상부터 있다.

주요 정당과 정당별 의석은 정치 제도편을 참조 바란다.

3) 사법부

사법부는 3심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종교법원, 노동법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법관의 임명은 9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대법관 3명, 법조인 2명, 공직자 4 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정치제도

1) 선거제도

이스라엘의 의회(Knesset)는 단원제로 총 120석이며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선거방식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며 득표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 받는다. 피선거권은 만21세이상, 그리고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어진다.

2) 입법부

크네셋(이스라엘의 일원제 국회)은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이다. 크네셋이라는 명칭과 120명의 고정된 의원 수는 기원전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기구였던 크네셋 하게돌라 (최고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크네셋 하게돌라는 기원전 5세기경 에즈라와 느헤미아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위원회이다.

새로운 크네셋은 구성이 확정되는 총선 후에 그 기능을 시작한다. 첫번째 회기에서 크네셋 의원들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크네셋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회는 4년 마다 선거로 선출되지만 임기 종료 이전이라도 스스로 혹은 총리에 의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선거 후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권한은 퇴임하는 의회가 가진다.

크네셋은 의회의 임무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일을 감독하는 것이다. 의회는 총회의 회기 동안 국가의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15개의 상임 및 특별 위원회를 통해 임무를 수행한다. 마약 오남용 위원회, 헌법, 사법 및 정의 위원회, 경제 위원회, 교육 및 문화 위원회, 금융 위원회, 외무 및 국방 위원회, 주택위원회, 이민, 흡수, 그리고 디아스포라 위원회, 내무 및 환경 위원회, 노동, 사회복지 및 보건 위원회, 국가 통제 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위원회, 과학 및 기술 위원회, 어린이 보호위원회, 여성지위 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총회 회기 중의 토론의 의제는 정부 또는 국회의원 개인이 제안한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활동도 포함된다. 토론은 히브리어로 진행되지만 의원들은 아랍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둘 다 공식 언어이다. 두 가지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 이용 할 수 있다.

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은 의회에서 3번의 독회를 통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토론과 조정을 거친 법안은 제1독회에서 본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에 관한 간략한 토론이 진행된다. 위원회에서 작업을 마친 후 법안은 상정을 미리 준비한 위원회 의원들에 의해 제2독회에서 총회에 다시 상정되어 이때 검토되고, 총 토론이 이어진다. 이 토론에서 법안이 다시 위원회의 검토나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 제3독회가 즉시 열리고 최종 투표가 실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그 법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장관·총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받아 관보로 공표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인장이 사법부에 의해 찍히면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3) 행정부

이스라엘의 행정부는 내각 정부로 국가의 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은 매우 방대하여 법에 의해 위임 받지 않은 다른 기관의 업무도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부의 자체 업무나 정책 결정 절차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호의를 늘리는 경우도 있으며 장관 회의를 통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의회의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부내각은 연립정당 들로 구성된다.

상의 후에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는 크네셋 의원 한 명을 선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임된 크네셋 의원은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부여된 28일 이내에 크네셋의 인증을 받기 위한 내각 명단을 정부 가이드라인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 장관들은 각자의 임무수행과 국회의 의결에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직위를 부여 받고 각 부의 장관이 되며, 특정 부서를 책임지지 않은 무임소 장관들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 총리가 특정 부서를 맡아 장관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장관들은 이스라엘 국민이자 거주자이어야 한다. 총리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장관들은 그들 부서의 차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네셋 의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크네셋과 마찬가지로 내각도 대개 4년을 임기로 하며 국회의 불신임, 총리의 서거, 총리의 사임 등의 이유로 단축될 수 있다.

총리가 국회의 불심인 의결이나 탄핵을 받거나, 서거, 사임 등의 이유로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부는 내각 중 한 명(반드시 국회의원이라야 함)을 총리서리로 임명한다. 퇴임총리와 장관들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들

○ 다비드 벤구리온(1948 - 1954)
○ 모셰 샤레트(1954 - 1955)
○ 다비드 벤구리온(1955 - 1963)
○ 레비 에슈콜(1963 - 1969)
○ 골다 메이어(1969 - 1974)
○ 이착 라빈(1974 - 1977)
○ 메나헴 베긴(1977 - 1983)
○ 이착 샤미르(1983 - 1984)
○ 시몬 페레스(1984 - 1986)
○ 이착 샤미르(1986 - 1992)
○ 이착 라빈(1992 - 1995)
○ 시몬 페레스(1995 - 1996)
○ 벤 야민 네타냐후(1996 - 1999)
○ 에후드 바락(1999 - 2001)
○ 아리엘 샤론(2001 - 2005)
○ 에후트 올머트(2006 4. 1 ~)

4) 사법부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된다.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장관, 의회의 의원 등)로 구성된 특별 지명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70세가 정년으로 70세 까지는 종신제이다.

○ 치안판사 재판소 - 시민 및 경범죄, 민사 및 형사사건 (판사 1명)

○ 지방법원 - 치안판사 재판의 항소 관할, 더 중요한 민사 및 형사 사건 재판(판사 1명 혹은 3명)

○ 대법원 - 국가의 최고 항소재판, 사법정의를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안 해결할 권리, 법에 의해 구속되거나 투옥된 사람을 방면할 권한이 있다.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한 청원서를 심리하고, 가장 높으면서도 낮은 지위의 법원이다.

○ 특별 법원 - 교통, 노동, 청소년, 군대 그리고 도시관련 문제 등 명백히 제한된 관할권(판사 1명)을 갖는 법원. 행정 법원

○ 종교 법원 - 각각의 종교 공동체의 사법기관들에 의해 확립된 개인 신상 관련 문제(결혼, 이혼, 양육비, 후견인역, 입양 등)에 대한 관할권. 유대 랍비 법원, 무슬렘 샤아리아 법원, 드루즈 종교 법원, 10개의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재판소)

5) 지방자치제도

8개의 시의회와 143개의 지방 의회가 있고 53개 지역의회가 있으며 읍과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인 KNESSET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시장과 지역 의회 단체장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3.주요 인사

가. 국가원수

이스라엘은 전통에 따라 "산헤드린"의 최고자인 "Nasi"를 매 5년마다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국가에 공헌한 지도자급 인사 중에서 미리 추천된다. 영어로는 President로 표기하며, 정당과 정권을 초월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권한은 없으며 상징적이어서 새 국회의 개회, 외교사절 접견, 국회가 확정한 법과 협정 서명, 국회와 정부가 정한 법관, 중앙은행장, 대사의 임명,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사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역대 대통령 명단은 아래과 같다.

- 1949-1952 Chaim Weizmann
- 1952-1963 Itzhak Ben-Zvi
- 1963-1973 Zalman Shazar
- 1973-1978 Ephraim Katzir
- 1978-1983 Yitzhak Navon
- 1983-1993 Chaim Herzog
- 1993-2000 Ezer Weizman
- 2000- Moshe Katsav

나. 주요 공직자

- 국회대변인: Dalia Itzik
- 대법원장: Aharon Barak
- 감사원장: Micha Lindenstrauss
- 중앙은행총재: Stanley Fischer
- 군참모총장: Dan Haultz
- 경찰청장: Moshe Karadi

다. 정당별 의석 수 (최근선거일 2006. 5. 4)

- kadima 28
- Labor 20
- Shas 13
- Israel Beiteinu 12
- Likud 11
- NY/NRP 9
- Pensioners 7
- UTI 6
- Meretz 4
- United Abab List 4
- Balad 3

4.외교관계

가. 대 아시아 관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지지를 얻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경제력이 있는 국가와 경제. 통상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80년대 초반 서울 주재 상주대사관 철수 이후 1995년에 양국 상주대사관 재 개설했다.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다. 1992년에 중국 및 인도, 1993년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나. 대 미 관계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 ○ 미국, 이스라엘에 년18억불규모의 군사원조와 12억불 규모의 경제 원조 제공
- ○ 이스라엘 측 요청에 따라 1999년부터 경제 원조 액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대신 군사 원조 액은 부분적으로 증액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전략협력협정(1983. 11), SDI 연구개발계획 참여(1986. 5), 방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87. 2), Arrow 요격미사일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1988. 6), 미사일 방어전략 협력협정(1998.10)등에 의거,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이며 FTA(1985)을 통해 양국교역량이 매년 더욱 증가 추세이며, 2005년에는 대미수출 150억불, 대미수입60억불을 기록했다.

다. 대 러시아 관계

제 3차 중동전쟁(1967. 6)을 계기로 소련의 일방적인 단교 조치 이후에도 양국은 UN 및 제네바 등 국제회의에서 비공식 외교접촉과 함께 과학. 기술분야 협력 및 의회. 정당 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비정부간 교류를 지속하여 왔다. 양국은1986. 4. 영사문제 협의를 위한 외교 접촉을 계기로 관계가 증진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 9. 교역사무소 교환설치, 1991. 1. 총영사관 설치에 이어 1991. 10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구소련계 유대인 이민 (89년 이후 1 00만 명 이상) 대량유입으로 관계가 더욱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대이란 핵 및 미사일 기술이전을 중단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라. 대 유럽 관계

서유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래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EU와는 FTA (1995)을 통해 교역 및 관광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구 소련 붕괴 이후 CIS제국과 동구제국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으로 유태인 이주제한철폐, 대이스라엘 외교관계 재개, 관광 및 과학기술 교류 확대 등 이스라엘과 동유럽관계가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다.

다만, 2002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력진압으로 군사용무기 등의 대이스라엘 금수조치로 이스라엘은 수출 및 수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품목이 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있어서 친 팔레스타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차 인티파다 때 대 팔레스타인 무력 진압을 책임진 이스라엘 군인 출신들을 영국에서 전쟁범으로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EU간의 관계가 썩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마. 대 중남미제국 관계

이스라엘은 국제적 고립 탈피전략의 일환으로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여온 중남미 지역에 대해 경제 진출을 강화하여 자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남미 33개 국가 중 쿠바를 제외한 3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 대 아프리카 관계

가나 등 사하라이남의[검은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제3,4차 중동전쟁(1967. 6. 및 1973.10) 및 석유파동이후 아랍측 입장에 동조하는 아프리카 제국들로부터 집단 단교조치 (레소토, 말라위, 스와질랜드 제외)를 당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바 있다.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걸프전, 중동 평화회담 진행 등으로 아랍측의 대 이스라엘 고립화 정책이 퇴색되면서 최근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외교망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 ○ 중동 평화회담 진행 이후 잠비아(1991.12), 나이지리아(1992.5), 베냉(1992.7), 감비아(1992.9), 콩고(1991.7) 등 26개국과 수교 또는 복교하여 06년 기준 40개국과 외교관계 유지

사. 대 주변국 관계

1) 이스라엘-요르단관계

1994년 평화협정체결 이후 10여 개의 경제. 과학, 문화관계조약체결을 통해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Hussein 요르단 국왕 사후에도 Abdullah 국왕은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2) 이스라엘-이집트관계

1977년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과 1978년 Camp David 협정을 기반으로 1979년 양국간 평화 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1982년 시나이 반도부터 완전 철군하였다. 2000S년 9월 시작된 2차 인티파다에 대한 샤론총리의 강경정책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2000년 말 주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 양국관계가 냉전기류가 형성 되었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2004년 12월 5일 주요 포로들을 맞 교환 함으로써 '차가운 평화'로 불리던 양국 간 긴장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간첩 혐의로 1997년 9월 체포돼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아랍계 이스라엘 사업가 아잠을 전격 석방했고, 이스라엘

은 4개월 전 이스라엘군 납치 살해 등을 목표로 무장 침투한 혐의로 구속된 이집트 대학생 6명을 석방했다. 이집트는 또 4년 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력진압에 항의하며 소환했던 주이스라엘 대사를 2005년 3월 17일 재 파견 했다. 이처럼 급진전된 화해 무드는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이후 25년 만에 조성된 것으로, '제2의 밀월(蜜月)시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3) 이스라엘-레바논 관계

PLO 테러행위에 대응해서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지역을 점령하고 PLO 지도부를 베이루트에서 튀니지로 쫓아냈다. 이후 1985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에 대항하는 헤즈볼라가 설립된 이후 이스라엘 군과 헤즈볼라간의 분쟁이 지속되다가 2000년 5월 당시 총리인 에후드 바락이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지역에서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계속되었고 2006년 7월 1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초소를 습격 병사 8명을 죽이고 2명을 납치 이스라엘 감옥에 복역중인 하마스 재소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협상을 거부하고 보복을 시작, 지상전으로까지 확대 되었다가 2006년 8월 1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휴전이 성립되었다.

4) 이스라엘-시리아관계

1967년 6일 전쟁 기간 중 이스라엘이 확보한 골란 고원 문제가 양국간 핵심쟁점 사안이다. 오슬로 합의 이후 양측간 평화협상이 개최된 바 있으나 이스라엘 내 폭탄 테러사건으로 인해 96. 2월이래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전면 반환을 계속 요구중이며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반환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의 지원에 대해 강력히 비난해 왔으며 이번 레바논 사태와 관련 양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5.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 대 사: 이갈 카스피(Yigal Caspi) (2006.01.23 ~)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18층 (110-726)

○ 전 화:
- 대표번호 82-2-739-8666
- 대사: 02-739-8666 내선: 503, E-MAIL: ambassador@israelemb.or.kr
- 상무과: 02-739-8666 내선: 542, 543, 544, E-MAIL: seoul@moit.gov.il
- 정치과: 02-739-8666 내선: 500, E-MAIL: politics@israelemb.or.kr
- 공보과: 02-739-8666 내선: 505, E-MAIL: press@israelemb.or.kr
- 문화과: 02-739-8666 내선: 504, E-MAIL: culture@israelemb.or.kr
- 영사과: 02-739-8666 내선: 512, E-MAIL: consul@israelemb.or.kr
- 무관실: 02-739-8666 내선: 532, E-MAIL: isramod@shinbiro.com2-564-3448

○ 팩 스:
- 대표 번호: (82-2)-739-8667
- 무관실: (82-2)-739-9962
- 상무과: (82-2)-739-9963

○ 홈페이지: http://seoul.mfa.gov.il

○ 영사업무 시간: 월요일 - 목요일 10:00 ~ 16:00. 금요일 10:00 ~ 14:00

6.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방문비자

한국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이스라엘에 입국, 체류할 수 있으며, 단, 이스라엘에서 영리 행위에 종사하려는 한국인 및 90일 이상 체류 예정 한국인은 제외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이스라엘의 외국인 입국.체류에 관한 제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스라엘 정부는 상기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상기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어떤 한국인에 대하여도 입국.출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한을 보유함.

○ (양국간 사증면제 협정: 1995. 5. 24 발효)
○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972-3-696-3244)

나. 이스라엘 체류 비자 문제

자국민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2003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추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지 거주 외국인의 비자 발급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5년 이상 자국 내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어 현지 주재 지상사 대표들도 비자문제에 봉착하여 5년이 경과된 지사(점)장들이 출국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장기 체류자들은 비자 연장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며, 기한이 넘게 되면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

다. 자유무역협정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동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와 교역규모를 고려하여 미국 등 주요교역국과의 FTA 협상 이후에 협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Ⅱ. 경제

7.경제정책

가. 경제정책 개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골격은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출을 줄이고, 또 공기업들을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정책은 올머트 총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더 큰 이스라엘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미 통신공사, 철도공사, 해운회사(Zim Line), 국영 항공사 엘알의 소유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 현재 한창 민영화가 진행 중인 분야는 금융 부문이다. 정부 소유 지분이 많은 은행들의 지분이 민간기업으로 이양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 될 때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불안 때문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최대 기업인 전력공사(IEC)와 항만청이다. 이들 조직의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경쟁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인프라부문의 경우 서비스 독점력이 높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 공기업 독점 대신 민간기업 독점으로 오히려 역효과도 우려된다.

전력공사의 민영화 차원에서 민자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형 발전소 건설은 거의 진전이 없고 일부 소형 자가 발전소만이 성과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현지 전력 관련 인사들은 발전소는 민영화된다고 해도 그 전기를 소비자들에게 배분할 때 결국 기존 전력공사의 전선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진정한 민영화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력공사를 지역별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이 협소하여 우리처럼 지역별로 구분할 여건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력공사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60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2기 건설 프로젝트도 다른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 05년 봄부터 진전 없이 계획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국가 경제 시스템을 운용해나가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 처방은 금리의 하향 안정, 외환자유거래를 통한 자국 통화의 안정, 물류 비용 감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 에너지원 확충, 세금 인하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이다.

2000년 중반 이스라엘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하이테크부문의 거품 붕괴 이후 팔레스타인 2차 인티파다와 이라크 전쟁 여파로 기업들의 줄도산과 대량실업 때문에 경기가 매우 악화되었으나, 최근 하이테크, 보안, 의료기기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로 대부분의 공공부문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전국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진행 중일 정도로 정부의 인프라 확충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민영화 정책

이스라엘정부는 아리엘 샤론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네탄 야후의 주도로 GDP의 절반을 넘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시킨다는 목표 하에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부 보유 주식을 민간시장과 해외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1월부터 현지 거대은행인 뱅크 레우미 지분 10% 를 외국 금융기관 투자가들에게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3번째 큰 규모의 은행인 디스카운트은행 지분도 매각했다.

다. 긴축재정과 세수익 증대

이스라엘 정부는 2005년부터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05년 말에는 흑자경영을 자축하기도 했으며, 2006년 예산안도 긴축재정정책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조세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엄격한 과세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2006년 7월 1일 15.5%로 인하한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각종 세율을 인하하면서도 과세 정책은 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신 경제동향

이-팔 관계, 대 아랍국과의 관계 등 국내외 주변정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2006년 상반기 경제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서 출발했었으나, 우려와는 달리 06년 1분기 이스라엘의 총생산은 4.5% 증가했으며, 1분기 수출은 86억불을 기록했다.

1분기 주요 수출품은 전자/컴퓨터부품, 유선통신 기기 및 장비, 항공부품, 의약품 등이며, 대 미국/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 유럽수출은 점점 감소 하고 있다.

나. 2006년 경제전망

- GDP 4.1% 성장 예상 -
- 국내외 안보상황 호전국면 -

이스라엘 재경부(Ministry of Finance)는 지역일간지를 통해 2006년 이스라엘 경제는 국내외 안보상황 호전국면, 세계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증가, 자국내 실업률감소 등의 호재로 인해 GDP 성장률 4.1%를 기록할 것이고, 총생산은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06’년 이스라엘 경제 성장은 이스라엘이 경제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의 3.3% 성장 예상, 세계 경제성장, 국제무역증가에 따른 이스라엘 경제의 동반성장 가능성과 ‘06년 평균실업률은 8.8%, 월평균 실업자수는 238,400명 등 실업률 감소로 인해 국내 경기가 살아 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 12일에 시작된 레바논 사태의 여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고 북부지역의 경제활동의 마비로 GDP 성장률이 상반기 6%에서 4%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원 : Globes 2006 상반기 기사 종합)

9.주요 산업 동향

가. 이집트와 천연가스 도입 합의

그 동안 장기간 줄다리기를 해오던 이스라엘-이집트간의 25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해서 계약서 서명 없이 최종계약이 체결된 양해각서 작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전력공사(IEC)와 Eastern Mediterranean Gas(EMG)가 발표했다.

따라서 이집트는 250억m^3 의 천연가스를 앞으로 15년 동안 이스라엘전력공사(IEC)에 공급하기 위해 이집트의 엘 아리쉬로부터 이스라엘 남부 해안도시에 있는 화력발전단지 아쉬켈론까지의 송유관 배설공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EMG사의 소유권은 이집트 정부(75%)와 유대인 기업인 요셉 마이맘(25%)에 의해 분리돼 있다.

당초 이스라엘 정부는 전 산업부 장관이었던 요세프 파리츠키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가스를 사려고 추진했으나, 샤론총리 집권 후 이집트를 거래파트너로 선택했다.

프로젝트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국 정부의 보증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1977년 양국 평화조약 이후 최초의 정부간 협력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외교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료원 : Globes (05년 10월 24일))

나. 자동차 부품 산업

이스라엘에서 한국차가 현대의 겟츠(국내명: 클릭)를 중심으로 인기몰이에 성공 하면서 05년 7월 기준으로 1억4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이 20%선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동차 부품 총 시장규모는 2004년 연말까지 그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주요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럽(36%), 독일(24%), 일본(10%), 미국(7%), 대만(5%), 한국(4%), 중국(3%)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엔진파트(정품), 브레이크 부품이나 램프 등 비교적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품들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바디파트나 필터 같은 품목들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중국이나 대만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엔진 베어링은 미국, 엔진부품은 유럽, 트랜스미션부품은 일본, 휠 디스크는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인기 차종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겟츠, 엘란트라 구형모델 및 2002년식 아반테 등이고, 과거 대우자동차가 판매한 라노스와 누비라가 다수 운행 중인 가운데 최근 GM의 상표를 부착한 OPTRA & AVEO등이 현지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부품 교체시기가 되는 2~3년 후 한국차 부품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한국차 부품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한편 한국산 부품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가격은 그 가파른 상승세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의 전반적인 좋은 이미지에 품질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 원유가 및 철강 등 원자제가 상승에 방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가격 하향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현지 바이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한국과 거래하고 있는 주요 수입업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타이완, 브라질 등 가격경쟁에 유리한 제조업체들을 접촉하는 등 다양한 수입선 확보에 노력을 쏟고 있으며, 또 한국 업체들의 경우 최소 주문량이 너무 커 시장이 좁은 이스라엘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딜리버리 기간도 너무 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 시장 진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품목에 따라 유럽인증(CE, E-mark, R90등)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최소 주문량이 적고,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대 이스라엘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차 부품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차 브랜드의 부품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라인을 보유해야 하고,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관세면제를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료원 :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상 다수 면담)

다. 이스라엘 휴대폰

삼성과 모토로라 등 세계 굴지의 핸드폰 제조업체들이 이스라엘 현지에 기술 연구소를 두어 핸드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현지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작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휴대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현지의 한 투자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인구의 103%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린츠는 동 추세로 나간다면 이스라엘의 휴대폰 가입대수는 2006년에는 710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스라엘에는 Pelephone(28%), Cellcom(37%), Partner/Orange(31%), MIRS(4%) 4개의 이동통신사가 있다.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GSM(유럽 표준방식), TDMA(시분할 다중접속) 등 전세계 다양한 이동전화 표준이 이스라엘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 ○ 삼성 - Pelephone, Cellcom, Partner/Orange
- ○ SK - Pelephone
- ○ LG - Partner/Orange, Pelephone
- ○ Telit(팬텍큐리텔) - Pelephone

라. 자동차 시장 분석

1) 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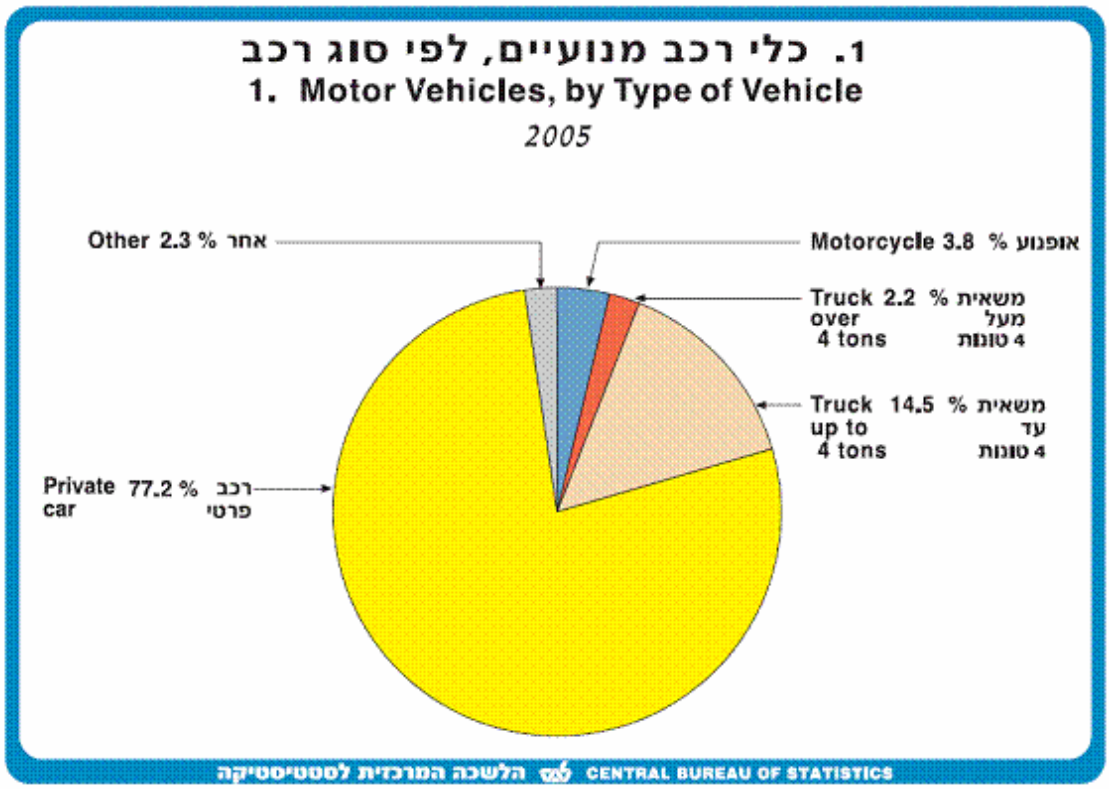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전무하고 자동차를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동차 부품도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해 현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세금이 비싼 국가 중 하나에 속하며, 특히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시 약 145% 가량의 세금을 내야하고, 자동차 부품 구입시에도 약 40%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현지 소비자들은 이스라엘에는 중/대형 차량보다는 2000cc급 미만의 중소형 차량이나 현대 겟츠 같은 Super mini차량, 엑센트/엘란트라급의 차량을 선호 하고 있다.

2) 시장동향

2006년 이스라엘 통계청 조사 결과 2005년 현지 총 차량 등록 대수는 2,107천대이며, 이중 승용차는 1,626천대이고 나머지 481천대는 상용차/특수용 차량인 것으로 집계 되었다.



자료원 : 이스라엘 통계청(Motor Vehicles) Publication No.1273
주 : 06년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자동차 생산국별 수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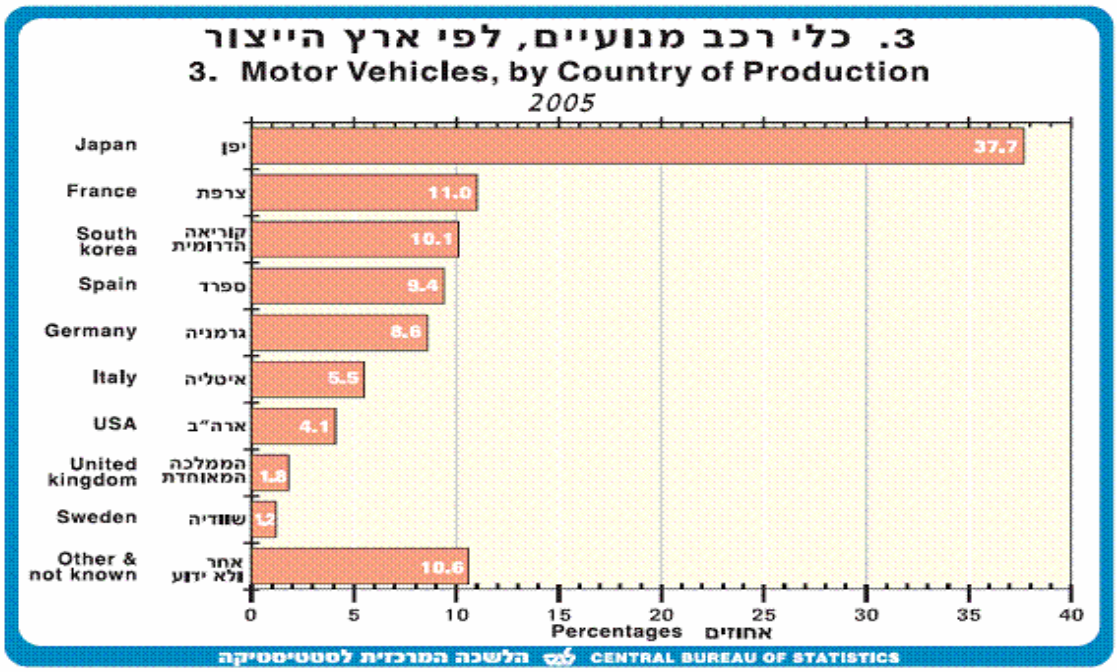
(단위: %)

생산국	2005	2004	2003	2002	2001
한국	**10.1**	**9.1**	**8.1**	**7.5**	**7.4**
일본	37.7	37.4	37.3	37.3	37.6
프랑스	11.0	11.5	11.9	12.1	11.9
독일	8.6	9.1	9.7	10.4	10.8
스페인	9.4	9.5	9.5	9.3	9.0
이태리	5.5	6.0	6.5	7.0	7.4
미국	4.1	4.3	4.7	4.8	4.9
기타국	13.6	13.1	12.3	11.6	11
총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Motor Vehicles) Publication No.1273

주: 06년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단위: %)



자료원 : 이스라엘 통계청(Motor Vehicles) Publication No.1229

자동차 생산국별 수입통계

(단위: 대, %)

국가	2004년	시장점유율	2005년	시장점유율	2006년(1~6)	시장점유율
일본	65871	46.27%	66930	45.91%	31546	43.1%
한국	31706	22.27%	34178	23.44%	14187	19.4%
유럽	31705	22.27%	28925	19.84%	19861	27.1%
미국 및 기타	13085	9.19%	15763	10.81%	7559	10.4%
합계	142367	100.00%	145796	100.00%	73153	100%

자료원 : 이스라엘 자동차 수입연합

10. 정보조사 자료원

- 이스라엘 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www.cbs.gov.il
- 상공노동부: http://www.moit.gov.il/
- 외무부: www.mfa.gov.il
- 정보통신부: www.moc.gov.il
- 재무부 세무정보: www.mof.gov.il/taxes
- 창업보육센터(Technological Incubators): www.incubators.org.il
- 벤처투자정보: www.ivc-online.com
- 전력공사(입찰정보): www.iec.co.il
- 전시정보: www.israel-trade-fairs.com
- 제조업체협회(우리나라 전경련 유사조직): www.industry.org.il
- 수출공사(KOTRA 유사 조직): www.export.gov.il
- 생명공학 산업 정보: www.bioisrael.com
- Doing Business in Israel: www.bdo.co.il
- 중앙은행(Bank of Israel): www.boi.gov.il
- 현지 최대 은행(hapoalim): www.bankhapoalim.co.il
- 경제일간지: www.globes.co.il
- 히브리어신문 영어판: www.haaretz.com
- 영자 신문(예루살렘 포스트): www.jpost.com
- 이스라엘 정치, 산업, 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정리: www.israel21c.org

Ⅲ.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GDP(US$억)		1,116	1,168	1,236	1,286(예상치)
1인당 GDP(US$)		16,491	17,165	17,841	*미발표
실업율(%)		10.9	10.4	9.4	8.7(1~4월)
무역(US$억)	수출	335	338	266(1-7월)	266(1-7월)
	수입	425	403	270(1-7월)	270(1-7월)
	수지	-90	-65	-4	-4
물가상승율(%)		-1.9	1.2	2.4	*미발표
연평균 환율($/세켈)		4.5483	4.4820	4.4878	4.432 06년 7월 평균

자료원 :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12. 무역통계

대외거래 지표

(단위: US$백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자본수지	214	465	528	410(1 월~10 월)
경상수지	-2,134	795	1474	1826(1 월~10 월)
무역수지	-6,797	-5,794	-6,544	-2,354
수출	25,759	31,783	33,812	36,610
수입	32,556	34,211	40,356	44,365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홈페이지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US$백만)

	2004	2005	2006(1-7 월)
총 계	33,812	36,428	26,690
한국	417	449	329
미국	14,175	15,500	10,290
벨기에	2,898	3,679	1,828
홍콩	1,907	2,372	1,574
영국	1,448	1,643	902
독일	1,361	1,353	945
네델란드	1,233	1249	751
인도	1,037	1,224	685
터키	813	919	519
이태리	810	877.8	578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표 16.6

이스라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US$ 백만)

국 명	2004	2005	2006(1-7 월)
총 계	40,356	44,365	27,090
한국	851	853.4	500
미국	6,099	6,042	3,312
벨기에	4,131	4,577	2,247
독일	3,090	2,894	1,821
스위스	2,682	2,464	1,455
영국	2,483	2,552	1,398
이태리	1,566	1,733	1,066
네델란드	1,484	1,626	1,004
중국	1,418	1,888	1,282
프랑스	1,249	1,203	752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표 16.10

이스라엘의 주요 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US$ 백만)

품목	2003	2004	2005
보석류	11,999	14,417	16,484
전기/전자제품	4,847	5,553	5,577
컴퓨터	2,116	2,669	2,904
광학/사진 및 의료장비	1,712	2,336	2,432
의약품	878	1,258	2,048
플라스틱	1,389	1,596	1,759
유기농 화학제품	1,376	1,613	1,198
항공기	988	1,024	935
비료	496	590	754
기계장비	466	575	645

자료원: 이스라엘 중앙 통계청

이스라엘의 주요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US$ 백만)

품목	2003	2004	2005
보석류	8,006	9,535	10,019
원유 및 원료	3,290	4,021	5,929
전기/전자제품	4,180	5,062	4,898
컴퓨터&부품, 기계장비 등	3,337	3,857	4,254
승용차	1,848	2,305	2,523
플라스틱/고무	1,036	1,358	1,491
광학/사진 및 의료장비	1,114	1,437	1,471
철강제품	971	1,297	1,422
무공해 화학제품	853	1,054	1,144
의약품	729	758	842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수출 현황

(단위: US$ 천 / %)

순위	품목명	2004		2005		2006(1 월~7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51,322	47.3	849,778	-0.2	447,259	-13.7
1	자동차	239,238	68.4	293,291	22.6	96,164	-50.9
2	무선통신기기	190,104	27.5	188,631	-0.8	65,821	-43.3
3	합성수지	55,605	8.8	70,220	26.3	63,836	78.3
4	영상기기	17,758	38.4	25,318	42.6	26,773	92.9
5	냉장고	24,403	14.7	27,092	11.0	16,997	-1.6
6	반도체제조용장비	309	-34.0	2,711	776.3	13,353	431.6
7	컴퓨터	14,472	-11.8	21,079	45.7	12,277	-8.9
8	자동차부품	14,959	11.5	16,889	12.9	10,722	12.1
9	플라스틱제품	19,672	29.1	17,022	-13.5	10,339	-0.1
10	반도체	7,428	79.5	11,901	60.2	9,766	66.3
11	음향기기	11,297	34.5	12,384	9.6	8,758	25.2

12	공구	7,811	34.8	8,504	8.9	8,754	129.7
13	원동기 및 펌프	9,120	-11.6	11,362	24.6	7,886	31.1
14	정밀화학원료	4,021	14.9	5,143	27.9	5,926	106.6
15	고무제품	10,312	15.3	9,143	-11.3	5,365	0.8
16	유선통신기기	5,794	10.4	7,834	35.2	4,108	-21.0
17	기호식품	2,245	29,748.5	4,746	111.4	3,818	41.0
18	회전기기	6,727	59.0	724	-89.2	3,764	474.9
19	금속공작기계	2,992	137.0	3,741	25.0	3,573	60.9
20	기타석유화학제품	1,863	54.7	4,246	127.9	3,455	52.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 : 분류 MTI 3 단위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수입 현황

(단위: US$ 천 / %)

순위	품목명	2004		2005		2006(1 월~6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77,026**	**50.1**	**503,742**	**5.6**	**261,413**	**14.0**
1	집적회로반도체	95,916	5.8	162,563	69.5	58,818	-25.7
2	계측기	43,343	398	50,597	16.7	26,622	94.7
3	유선전송장치	28,406	18	27,647	-2.7	12,229	55.4
4	기타석유화학제품	24,640	50.5	19,584	-20.7	12,767	19.0
5	축전기	21,041	43.5	16,115	-23.4	5,183	-40.5
6	기타정밀화학원료	11,637	-6.6	14,829	27.4	5,961	-31.5
7	의료용전자기기	9,109	12.9	13,797	51.5	10,713	68.5
8	반도체제조용장비	10,438	1,676.80	12,092	15.9	12,213	129.3
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173	36.7	12,321	99.6	8,851	28.7
10	항공기부품	12,587	-46.2	12,587	0	4,992	-17.7
11	고속도강및초경공구	6,922	17.8	9,648	39.4	6,890	56.3
12	보석	6,641	-26.8	9,490	42.9	4,481	-6.2
13	무선통신기기부품	8,297	137.6	9,133	10.1	-	-
14	광학기기부품	2,832	67.6	6,000	111.9	4,313	54.4
15	동괴및스크랩	5,126	184.9	5,499	7.3	4,697	83.9
16	칼륨비료	7,651	185	185	-32.1	5,128	11.1
17	컴포넌트	6,372	-36.9	7.397	16.1	8,049	303.7
18	유선통신기기부품	5,491	44.8	4,955	-9.8	-	-
19	X 선및방사선기기	4,593	88.2	4,562	-0.7	9,262	498.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13. 투자통계

최근 연도별 이스라엘 내 외국인 투자 실적

(단위: US$백만)

	2003	2004	2005	2006(1월-7월)
1. 외국인 총 투자금액	5382	8052	11559	17188
해당 산업별				
- 사기업 투자	3915	8029	11692	17718
- 은행	-558	-1121	-131	340
- 정부	2026	1144	-2	-870
투자 방식				
- 직접투자	3943	1757	5585	7773
- 포트폴리오투자	1870	6870	4690	7623
기타	-430	-575	1284	1791
2. 내국인의 해외투자(-)	-7809	-11591	-18991	-20882
해당 산업별				
- 사기업 투자	-4903	-7732	-12029	-18576
- 은행	-1834	-3584	-6342	-3232
- 정부	-1071	-275	-621	926
투자 방식				
- 직접투자	-2065	-4544	-2491	-11667
- 포트폴리오투자	-2813	-1921	-7597	-5130
기타	-1864	-4826	-6965	-5028

자료원 : 이스라엘 중앙은행 - Foreign Exchange Activity Department
홈페이지 : www.boi.gov.il/deptdata/pik_mth/diftye_1.htm

한국의 대 이스라엘 투자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천불)
2001	1	17,000
2002	2	400
2003	1	481
2005	2	2,224
2006	1	5,050
총계	7	25,155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주: 06년 6월말 기준

이스라엘의 대한 투자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천불)
1996	1	69
1997	2	200
1998	4	624
1999	1	50
2000	2	91
2001	1	-
계	11	1,03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1 : 상기 실적에는 ISCAR의 대한중석초경의 합금사업부분 인수 건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ISCAR은 화란 현지 법인을 통해 대한 투자했기 때문임. 상기 투자의 대부분은 판매 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실적임.
주2 : 06년 4월 기준임

○ ISCAR(회장 S. Wertheimer)
- 투자시기: 1998년
- 투자금액: $150백만
- 투자내용: 대한중석의 핵심사업인 절삭공구 사업을 인수하고 이름을 Taegu-Tech로 개명
- 네델란드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통계로 잡히지 않음.

○ Tadiran Telecom
- 투자시기: 1998년
- 투자금액: (자본금 1억원)
- 투자내용: 성화통신과 통신장비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 Zim Line
- 투자시기: 1998년
- 투자금액: 지분의 10%
- 투자내용: 대한통운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참여

Ⅳ.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서 두 개의 뚜렷한 계절로 나뉜다.

○ 겨울에 해당하는 11월에서 3월까지는 우기로서 비가 많이 오므로 습도가 높아 한기를 느끼기 쉽고, 대신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7개월 동안 계속되어 무덥지만 그늘 만 있으면 견딜 만하다.

○ 겨울 동안에는 비가 오므로 전국에 야생화가 만발하나 여름에는 인공으로 물을 주는 곳에서 만 식물이 자란다. 강우량은 북쪽과 중부지방에 많으며, 남쪽 사막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

○ 북쪽 헬몬산에서는 겨울 2-3개월 동안 스키를 탈 수 있으며, 반대로 사해에서는 겨울에도 수영을 할 수 있다.

○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고, 5월 전후에는 사막 먼지바람(함신)이 심하게 불어 여행에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 여름에는 무덥고 건조하므로 여행 중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한국인들은 특히 예루살렘 고지에서 여름철이라도 밤에 한기를 느끼므로 어느 정도 두터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겨울에는 일기변화가 심하며 강우량은 많지 않으나, 비가 심한 강풍과 함께 동반해서 올 경우 체감온도가 상당히 떨어져 겨울 옷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겨울(11월 말 - 2월말경)에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복장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 평균기온과 강우량, 1월/7월

○ 텔아비브
- 평균 최고기온(섭씨): 18.5 / 29.6
- 평균 최저기온(섭씨): 10.5 / 24.3
- 평균 강우량(㎜): 133.1 / 0

○ 예루살렘
- 평균 최고기온(섭씨): 14.2 / 29.9
- 평균 최저기온(섭씨): 5.3 / 18.2
- 평균 강우량(㎜): 140.5 / 0

(자료원: 이스라엘 중앙통계국)

다. 출장시 복장

○ 하절기(4월-10월)
- 가벼운 여름옷, 반바지, 반팔셔츠, 가벼운 구두, 운동화, 실내슬리퍼, 선글라스, 모자, 긴소매 웃옷, 긴바지

○ 동절기(11월-3월)
- 코트, 스웨터, 우산, 겨울옷

○ 환절기(3-4월, 10-11월)
- 따뜻하고 가벼운 옷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7시간으로 한국의 오후 3시는 이스라엘의 오전 8시다.

하계기간(보통 3월 - 9월)에는 섬머타임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가 6시간으로 짧아진다. 즉 한국의 오후 3시는 이스라엘의 오전 9시가 된다.

나. 근무시간

일반직장의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7:00가 일반적이다.

이스라엘의 주말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샤밧)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휴무 이거나 오전근무만 하고 대신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한다.

○ 관공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 - 15:00 이다. 그러나, 12시 이후에는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관공서 출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 은행: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2시까지 개점한다.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4시 - 오후 6시 사이에 추가로 개점한다. 은행별로 개점 시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우체국: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전 8시 - 정오, 오후 3시30분 - 6시30분까지 영업을 한다. 단, 수요일은 오전 8시 - 오후 1시30분까지이고 금요일은 오전 8시 - 정오까지만 근무한다.

○ 일반상점: 오전 9시(9시30분) - 오후 7시(7시30분)까지이며, 수퍼마켓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개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요일은 오전만 개점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는데, 상점에 따라 토요일 일몰 이후부터 밤늦게까지 개점하기도 한다.

3. 도량형

가. 도량형

이스라엘은 비지니스는 물론 사회 관행적으로도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특히, 미터제 단위가 아닌 수입 상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넓이에서만 국제적으로 통용하지 않는 DUNAM이라는 현지 단위를 사용한다.

○ 길이: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 무게: 그램, 킬로그램, 톤
○ 부피: 입방센티미터, 입방미터, 리터
○ 넓이: 평방미터, * DUNAM(1,000㎡)

나. 전기규격

전압은 230볼트, 주파수 사이클은 50HZ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용품의 플러그는 3구형을 쓰며(접지포함), 한국제품같이 2구형 플러그인 경우에도 별도의 어댑터 없이 콘센트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제품(다리미, 전기밥통)의 경우 현지 콘센트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어댑터나 플러그가 필요하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간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인은 90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비자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미리 관광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스라엘공항에서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표(return ticket)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2년부터 이스라엘의 경기가 악화되어 실업자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또 이민국 경찰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신분증(여권 등)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므로 현지 체류시 항상 휴대해야 하며, 이민국 경찰의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체류(취업,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갑을빌딩 18층 (우편번호 110-726) 02 -739-8666, 상무부 739-2576 팩스 02-739-9963)

이스라엘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90일 연장 가능)에는 이스라엘 내무부 지방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등 대부분의 도시에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취급하는 내무부 지방사무소가 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직접 여행할 경우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2003년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5년 이상 체류 비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나. 입국 심사 간단하게 받는 요령

이스라엘 입국 시 한국 국민이 까다롭게 입국 심사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이스라엘에 불법 취업을 많이 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국민으로 오인될 경우 공항이나 국경에서 수모를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단 이런 눈길을 끌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일이 수월히 풀릴 수 있다. 즉 입국목적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출국 비행기표, 회의 및 비지니스 입국시는 관련 서류, 관광시에는 투숙호텔과 관련 여행사 등 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미리 제시하면 오히려 이것이 꼬투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만 제시해야 한다.

입국서류에 Korea라고 쓰면, 간혹 북한인이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예 Repulic of Korea 또는 South Korea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 출입국시 유의사항

이집트, 요르단, UAE를 제외한 다른 아랍국 여행시 여권상에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을 경우 입국이 불허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이스라엘 입국시 여권은 제시하되 "No stamp on passport"를 분명히 요구하여 여권대신 출입국 카드에 스템프를 받아 이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세관보다 보안이 우선시 되는 곳이므로 무기, 화약류, 마약, 노트북 컴퓨터, 식료품 등이 없을 경우 비교적 통관이 쉽다. 전시회 출장을 위해 샘플을 반입할 경우 샘플임을 증명하는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통관시 제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스라엘은 입국시보다 출국이 더 까다로우므로 항공시간보다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시에는 테러에 대비하여 엄격한 검색과 보안 관계자의 질문 공세가 반복적으로 실시되므로 차분히 사실대로 대답하되 항의를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라. 출입국 절차

이스라엘 출입국시에는 출입국 카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에 필요한 특이한 절차는 없으나 상당히 엄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테러에 대비한 통상적인 일이므로 불편한 일로 여기지 말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스라엘 공항 내에는 녹색과 적색 2가지의 통관대가 있으며, 녹색 통관대는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물품만을 소지했을 경우 사용하고 적색 통관대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이용한다.

만약 이스라엘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여행 중 귀금속등의 고가품 구입시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세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단하여 면세품의 소지여부는 거의 검사하지 않으며,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Tax Refund라고 적힌 곳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가끔 상품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시 구입상품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국 통화인 세켈로 환급을 해준다.

마. 공항 안내

총 4층 건물이며, 지하에는 도착홀(Arrival), 1층에는 주차장(Parking Garage), 2층은 대중교통(Public Transfertation), 3층은 출국홀(Depar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기가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하면, 도착홀이 있는 지하층을 통해 빠져 나오게 된다.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출장자인 경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서 출입구를 빠져나오면 중간에 택시 부스가 있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항에서 텔아비브 시내로 가는 리무진버스와 정기 시내버스가 있으며 주요도시인 예루살렘과 하이파 등지로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공항 개장과 함께 개설된 기차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벤구리온 국제공항 홈페이지 www.ben-gurion-airport.co.il 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바. 면세품 보유한도

- 주류: 코냑 1리터, 포도주 2리터
- 향수: 1인당 0.25리터
- 담배: 250개피, 엽연초 250g이하
- 선물류: 미화 150불 이하
- 식품: 3kg이하(단일 품목당 1kg이하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이스라엘의 화폐단위는 쉐켈(New Israel shekel)로서 약칭은 NIS이다.
1쉐켈은 100 아고롯(Agorot)이다

- 주화에는 10, 5, 1, 1/2 쉐켈과 10 아고롯이 있다.
- 지폐에는 200, 100, 50, 20 쉐켈 액권이 있다.

나. 환율

US$ 1 = NIS 4.493(06. 6.14일 기준)

현금보다는 T/C 환율이 유리하고, 시내 환전소 환전소나 우체국에서 환전 하는 것이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은행 환전보다 유리하다. 또 호텔의 경우 카운터에서 환전이 가능하므로 소액의 경우 호텔에서 환전하면 환전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다. 국내 외환사정이나 환전소에 따라서는 은행보다 유리하게 환율을 적용해 주기도 한다.

최근 연도별 평균환율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1=4.2803세켈
- 2002년: $1=4.7378세켈
- 2003년: $1=4.4500세켈
- 2004년: $1=4.4820쉐켈
- 2005년: $1=4.4878쉐켈
- 2006년 7월 : $1=4.458쉐켈

외환 반입과 반출에 거의 규제가 없으나 출국 시 이스라엘 화폐를 외환으로 환전할 경우 500달러 이상일 때에는 외환을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한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환전은 5,000달러까지 가능하므로 환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다. 신용카드 사용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어있으며,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라고 해도 해외에서 사용이 허용된 신용카드는 현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호텔, 식당, 렌터카 이용 에서부터 쇼핑까지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단지 규모가 영세한 구멍가게 라든지 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해야 한다.

6. 물가정보

□ 도시: 텔아비브(이스라엘)			- 환율 : US$1 = NIS4.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순모100%)	580	7.1	구두(1켤레, 소가죽)	290
1.2	넥타이(1개,실크100%)	120	7.2	치약(150g, 1개)	4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68	7.3	칫솔(1개)	5
1.4	양말(1켤레,면100%,현지산)	7	7.4	면도기(1세트)	12
1.5	코트(1벌,롱코트,추동)	1,2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9	7.6	화장지(1통, 300매)	7
1.7	청바지(Levi's)	130	7.7	비누(1개)	1.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안심)	3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5	8.2	볼펜(12개)	10.5
2.3	닭고기(1KG,생닭)	8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0
2.4	쌀(1KG,Short Grain)	1.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8
2.5	밀가루(1KG)	1	8.5	휴대폰(범용형)	720
2.6	설탕(1KG,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2
2.7	계란(10개)	2.5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1회설치)	없음
2.8	감자(1KG,현지산)	1.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0,00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29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류(1L)	1.5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등록비(2,000cc)	380
3.4	설렁탕류(1인분, 설렁탕, 곰탕등)	없음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600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없음	10.2	시내버스(1구간)	1.3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4.5
4.1	햄버거(1개)	4.3	10.4	택시(추가요금/Km)	0.8
4.2	피자(1판)	28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9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90.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5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7
4.5	담배(수입산, 1갑)	4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3
4.6	위스키(1병, 750ml)	49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3
4.7	커피(1병, 175g)	7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1통,2~3페이지)	0.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nished)	2,50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3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6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4
6.1	TV(29인치, 칼라, 범용)	1,200			
6.2	VTR(6헤드, 범용)	16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60			
6.4	전자레인지	52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3,5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600			

□ 도시: 텔아비브(이스라엘) — - 환율 : US$1 = NIS4.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80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2,00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8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연간)	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4,5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4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5,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6,800	18.6	연간국경일	9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120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5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13.3	골프공(1타)	8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1,500	19.1	법정최저자금	-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2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10~ 2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10~ 5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15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3%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7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5			
14.4	치과(스켈링,1회)	35		※13.4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6		※16.5~6 호텔비에 포함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력지)	40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60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6.8			
	16. 호텔				
16.1	특급호텔	250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22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5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20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5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20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2,50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2,000			

7. 교통/통신

가. 이스라엘 입국코스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통하는 25개 이상의 여러나라 항공사가 정규운항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대개 유럽을 경유하여 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IMF 이후 폐쇄되었던 카이로 직항 대한항공이 2003년 10월부터 재취항 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노선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서울-타시켄트-텔아비브간 운영하는 것으로서 서울에서는 성지순례여행사(02-736-9114)가 주로 판매하고 있다.

해상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는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에서 운행되는 이스라엘 하이파행 배편이 애용되었으나, 현재는 테러위험을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육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거쳐 타바 국경으로 입국하는 방법과 요르단으로부터는 여리고 부근의 알렌비 다리(외교관만 허용), 요단강 상류의 벳산 부근에 있는 핫산국경, 그리고 남쪽 아카바 국경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남쪽으로 엘랏과 북쪽으로 로쉬피나 선 등이 있으며, 금액은 편도 120 - 150가량이고 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다. 국내선 구간은 텔아비브-에일랏, 하이파-에일랏으로 금액은 각각 편도 44불, 94불 가량이다. 국내선 항공사로는 IS-RAIR와 Arkia가 있다. 한편, 외국인이 현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검색을 받기 때문에 현지교민들의 경우 이스라엘 국내 이동시 항공 보다는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나. 국내 교통

1) 택시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있고, 또한 콜을 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9.10쉐켈이고 100미터마다 0.30쉐켈씩 부가된다. 택시승차시 경우에 따라서 미터기를 쓰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으므로, 승차하기 전 목적지를 말하고 미터기를 쓰도록 택시기사에게 정확이 요구를 하여야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콜택시를 부른 경우는 요금에 3.5쉐켈이 추가된다. 시외지역을 택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터기를 쓰지 않고 정해진 협정요금을 내야 한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공항 2층 Public Transportation 입구에 있는 요금 안내소 부스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택시를 타는 것이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다.

야간과 안식일에는 할증료가 더해진다.

2) 대중교통

이스라엘에는 하이파 이외에는 지하철이 없고 일반버스와 합승버스가 있다. 일반버스의 요금은 5.5쉐켈이다. 합승버스는 버스와 택시 기능을 합친 것으로 크기는 우리나라의 봉고차 정도로 정해진 노선을 다니나 손님이 원하는 곳에서 승하차 할 수 있다.

합승택시(쉐로트)의 요금은 5쉐켈로 일반 버스보다 오히려 저렴하다.

기차는 크게 나누면 예루살렘-텔아비브 노선과 브웰쉐바-하이파 노선이 있으며 중간 기착지가 많이 있다. 가격은 예루살렘-텔아비브 기준 편도 19쉐켈이다.

3) 도로 및 자동차 통계

이스라엘의 도로는 총 16,281킬로미터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말 기준 2,107천대로서 승용차 1,626천대, 상용차 및 특수용차량 481천대 등이 운행중이다.

4) 국제 전화

이스라엘은 3개의 국제 전화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각 서비스회사의 사용번호는 00, 012, 013이며 요금은 회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한국과의 통화를 위해서는 013 이 가장 저렴하다.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호텔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 전화가 통화 중이어서 전화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록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수가 있으므로 체크아웃시 리셉션에 항의하면 제외시켜 주는 곳도 있다.

5) 국내 전화

국내 전화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시내 통화의 경우 한 통화(5분)당 0.24쉐켈이고 시외통화의 경우는 통화당 가격은 같으나 지역별로 한 통화의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6) 우편 및 수화물 관련

편지나 우편, 수화물을 발송할 시 주소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현지 우체국의 우편 및 화물 전달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중요한 자료나 서신 발송 시에는 DHL이나 EMS등 발송 후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이스라엘의 호텔은 가격이 비싼 편이나 관광지의 특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호텔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호텔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www.hotelbook.com, www.israel-travel.net/hotels.htm

비즈니스 중심지인 텔아비브 호텔 숙박료는 무역관의 특별 할인율 기준으로 지중해 전망이 보이는 해변가 소재 특급(5스타) 220불, 4스타급 150불 그리고 바다 전망이 없는 시내쪽 비즈니스 호텔은 120불 수준이다. 이는 시즌별로 요금이 조정된다. 그리고 사전 예약없이 공항에서 곧장 호텔로 직행하는 경우 정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1박에 300-400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텔아비브

○ SHERATON HOTEL, 115 HAYARKON ST.
- Tel: 972-3-521-1111 Fax: 972-3-521-1156

○ METROPOLITAN HOTEL
- Tel: 972-3-519-2727 Fax : 972-3-517-2626

○ SHERATON MORIAH HOTEL, 155 Hayarkon St. Tel Aviv
- Tel: 972-3-521-6651 Fax : 972-3-527-2514

○ HILTON HOTEL INDEPENDENCE PARK
- Tel: 972-3-520-2222 Fax: 972-3-527-2711

○ CARLTON HOTEL, 10 MORAD HAYARKON ST.
- Tel: 972-3-520-1818 Fax: 972-3-527-1043

○ DAN PANORAMA HOTEL, CHARLES CLORE PARK
- Tel: 972-3-519-0190 Fax: 972-3-517-1777

○ DAN TEL AVIV HOTEL, 99 HAYARKON ST.
- Tel: 972-3-520-2525 Fax: 972-3-524-9755

○ BASEL HOTEL, 156 HAYARKON ST.
- Tel: 972-3-520-7711 Fax: 972-3-546-7687

○ GRAND BEACH HOTEL, 250 HAYARKON ST.
- Tel: 972-3-543-3333 Fax: 972-3-546-6589

○ TAL HOTEL, 287 HAYARKON ST.
- Tel: 972-3-542-5500 Fax: 972-3-546-7687

2) 예루살렘

○ DAN PANORAMA HOTEL, 39 KEREN HAYESOD ST.
- Tel: 972-2-569-5695 Fax: 972-2-623-2411

○ HILTON HOTEL, 7 KING DAVID ST.
- Tel: 972-2-621-1111 Fax: 972-2-621-1000

○ KING DAVID HOTEL, 23 KING DAVID ST.
- Tel: 972-2-620-8888 Fax: 972-2-620-8882

○ KING SOLOMON HOTEL, 32 KING DAVOD ST.
- Tel: 972-2-569-5555 Fax: 972-2-624-1774

○ ARIEL HOTEL, 31 HEBRON ROAD
- Tel: 972-2-568-9999 Fax: 972-2-673-4066

○ TULIP INN GOLDEN WALLS HOTEL, SULTAN SULEIMAN ST.
- Tel: 972-2-627-2416 Fax: 972-2-626-4658

3) 하이파

○ DAN CARMEL HOTEL, 85 HANASSI AVE.
- Tel: 972-4-830-3030 Fax: 972-4-830-3010

○ DAN PANORAMA HOTEL, 107 HANASSI AVE.
- Tel: 972-4-835-2222 Fax: 972-4-835-2235

○ NOF HOTEL, 101 HANASSI AVE.
- Tel: 972-4-835-4311 Fax: 972-4-838-8810

○ HAIFA TOWER HOTEL, 63 HERZL ST.
- Tel: 972-4-867-7111 Fax: 972-4-862-1863

○ MAROM HOTEL, 51 HAPALMACH ST.
- Tel: 972-4-825-4355 Fax: 972-4-825-4358

나. 식당

○ 이스라엘내 식당에 관한 유용한 사이트: www.dinnersite.co.il

1) 한국식당

○ KOREA HOUSE(한국음식) 23 Solomon ST. 2 floor, JERUSALEM (02-625-4756)
- 이스라엘 내에서 한국식당은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 현지여행 중 한국음식을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단체예약손님들이 많으므로 단체이용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2003년 6월까지는 텔아비브에도 한국식당이 있었으나 경영 적자로 문을 닫았다.

2) TEL AVIV 지역

○ China Seafood (중국식) 3 SHENKAR ST. (03-516-6741)
- 한국인의 입맛에 맞고, 값도 적정하여 주재상사원들이 가장 즐겨찾는 식당으로 위치는 해변가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인근

○ YAKIMONO(일식) 317 HAYARKON ST. (03-544-3864)
- 텔아비브 북단에 있으며, 규모가 크고 가격은 비싼편 임

○ KYOTO(일식) 32 MONTEFIORE ST. (03-566-3103)

○ SUSHI BAR (일식) HILTON HOTEL (03-520-2222)
- 힐튼호텔내 로비층에 있으며, 이스라엘 음식규정 Kosher를 준수하는 고급식당

○ ITZIK HAGADOL(이스라엘식) 3 RAZIEL ST. YAFFO (03-683-0033)

○ YEHUDA HAVAZI(이스라엘식) 7 RAZIEL ST. YAFFO (03-518-7424)

○ Aladin (FISH & SEA FOOD) 5 MIFRATZ SHLOMO, OLD JAFFA (03-682-6766)
- 욥바 올드시티내, 바다 전망과 적정한 가격

3) JERUSALEM 지역

○ OASIS(일식) HOLIDAY INN HOTEL (02-658-8888)
○ MANDARIN(중국식) 2 SHLOMZION HAMALKA ST. (02-625-2890)
○ DA LA THEN(중국식) 34 BEIT LECHEM ROAD (02-673-2432)
○ SHANHAI(중국식) 39 AGRIPAS ST. (02-622-2814)
○ ME VA ME(이스라엘식) 34 BEN YEHUDA ST. (02-624-2214)
○ RONDO(이스라엘식) 41 KING GEORGE ST. (02-623-2223)
○ DA GREEF(FISH & SEA FOOD) 33 HASHALOM ST., ABU GOSH (02-570-3111)
○ GRAPPA(FISH & SEA FOOD) 7 BEN SHATACH ST. (02-623-5001)
○ BAR DAG(FISH & SEA FOOD) 5 RIVLIN ST. (02-625-8445)
○ GRAPPA(FRENCH) 7 BEN SHETACH ST. (02-623-5001)
○ MAMMA MIA(Italian) 38 KING GEORGE ST. (02-624-8080)

4) HAIFA지역

○ NOF YAM(중국식) 2 LIBERIA ST. (04-825-4594)
○ TAI PEI(중국식) HUZOT HAMIFRAZ (04-842-1521)
○ HAGRIL HABULGARI(이스라엘식) 56 JAFFA ROAD (04-853-1269)
○ OFFIR(이스라엘식) 1 BACHAN ST. (04-855-8364)
○ HAZDAFA(FISH & SEA FOOD) 43 BEN GURION ST (04-851-1841)
○ VOILA(FENCH) 21 NORDAU ST. (04-866-4529)
○ PESTO(ITALIAN) 110 MORIA ST. (04-834-5548)

9. 관공서관행

이스라엘 공무원들은 정부 부처에 따라 민원처리 방식이나 태도가 상이하다. 가령, 외교부나 상공부와 같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나 이익과 관련이 있는 부처 직원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개방적이고 친절한 편이나, 비자 발급이나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내무부와 경찰은 거칠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다.

현지 행정 조직 시스템이 직무별 담당자 중심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 특정 행정기관을 접촉할 때 담당자가 휴가 또는 출장 중이면 그가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민원처리 담당 기관의 경우, 담당자 면담을 위해 한 두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 종사자들은 대개 영어가 능통한 편이지만, 주로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에는 영어 의사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도 더러 있다.

공무원 청렴도 측면에서 볼 때 봐주기식 뇌물관행은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장치가 되어 있어 깨끗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공휴일

가. 공휴일

이스라엘의 공휴일은 히브리력에 의한 종교절기가 대부분이다.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 절기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역에 따라 문을 닫거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일몰 무렵까지는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택시 운행은 하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공휴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히브리력을 사용하므로 양력으로는 해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로 서기 2006년은 유대력으로 5766년에 해당한다.

2006년 공휴일

기 간	휴 일 명	비 고
3월 1일	독립기념일	휴일
3월 14일	푸림절	휴일
4월 12일	Passover Eve(유월절 전야)	8:00-13:00
4월 13일	Passover(유월절)	휴일
4월 14~17일	Passover weekdays(유월절)	8:00-13:00
4월 19일	Passover(6월절)	휴일
5월 2일	Independence Day Eve(독립기념일 전야)	8:00-13:00

5월 3일	Independence Day(독립기념일)	휴일
6월 1일	Shavuot Eve(샤부옷 전야)	8:00-13:00
6월 2일	Shavuot(샤부옷)	휴일
9월 22일	Rosh Hashana Eve(신년 전야)	8:00-13:00
9월 23~24일	Rosh Hashana(신년)	휴일
10월 1일	Kippur Eve(속죄일 전야)	8:00-13:00
10월 2일	Yom Kippur(속죄일)	휴일
10월 6일	Succoth Eve(초막절 전야)	8:00-13:00
10월 7일	Succoth Day(초막절)	휴일
10월 9 ~ 13일	Succoth Weekdays(초막절 주간)	8:00-13:00
10월 14일	Succoth Day(초막절)	휴일

나. 출장 지양 기간

유월절이 있는 4월과 신년 등 공휴일이 많은 9-10월은 현지에 출장을 하더라도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욤키푸르는 유대인들에게 연중 가장 엄숙한 종교 휴일로써 이날은 공항이 폐쇄되고, 일체의 차량 이동이 금지되는 대속죄일이므로, 현지 출장 일정 수립시 이 기간을 피해야 한다.

다. 주말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기준으로 한 히브리력과 태양력을 혼용하기 때문에 출장시 주의가 요구된다.

1) 유대인

유대인의 경우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가 안식일이므로 보통 가족간의 모임을 위한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금요일은 회사가 문을 닫는 곳이 많다. 또 금요일 오전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내부 잡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점은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 2-3시까지 문을 연다.

2) 아랍인

아랍인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금요일 주말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업무를 한다. 유대인 절기는 아랍인 지역에서는 거의 무시된다.

3) 외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 대사관은 본국과의 업무연락에 편리하도록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한다.

외국인 회사들은 현지 비지니스에 편리하도록 유대인 주말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의복준비: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우 덥고 비가 내리지 않아 반팔, 반바지, 샌달 등이 필요하며 강렬한 태양때문에 모자와 선글라스가 필수적이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으나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심하여 우산, 쉐터, 예루살렘에서는 가벼운 외투가 필요하다.

전기제품: 전기규격이 50헤르쯔, 220볼트이고 3구형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2구형 콘센트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쓰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코드 구명이 작아서 어댑터가 필요하다.

나. 여행여건

1) 치안

팔레스타인에 의한 자살테러가 잦아 여행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관공서, 식당 등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항상 보안경비원이 소지품 체크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조가 요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버스 안, 쇼핑몰, 시장, 빌딩 등을 다닐 때 조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이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미터기를 사용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단 시외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협정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미리 요금을 정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3) 팁관행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료로 12%-15%의 팁을 주어야 한다. 음식점에 따라 서비스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영수증을 잘 보아야 한다. 호텔에서도 일반적으로 서구에서의 팁 관행을 따르면 된다. 택시등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한 별도로 팁을 줄 필요는 없다.

4) 식수

이스라엘의 수돗물에는 다량의 석회가 녹아 있으므로 음료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미네랄워터를 사서 마셔야 한다. 주유소에서도 판매하므로 가게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주유소에 들러 사는 것이 좋다.

다. 쇼핑

1) 물가

이스라엘의 물가는 대체로 한국보다 비싼 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17000불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 68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지산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자동차, 사무용품, 가정용품과 같은 수리, 부동산 중개업, 변호사 및 여성용 파마 등과 같은 서비스업의 비용도 매우 비싼 편이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가격의 10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편이지만, 이스라엘이 유럽과 미국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들 구. 미산 소비재들의 가격은 국내에서의 수입품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상품 구매 결정에 가격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은 전세계의 생산공장과 유통센터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저가품을 수입해오고 있어 일상 생활용품의 시판 가격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쇼핑장소

최근 이스라엘 전역에 현대식 쇼핑몰들이 개장하여 식품류, 식당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1990년대 비해 생활여건이 훨씬 편리해졌다. 수입 경쟁의 촉진으로 가구점들도 많이 생겨났고 아시아식품점들도 늘어났다. 특히 텔아비브에서 북으로 약 25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나따니아에 있는 Tiv Tam이라는 수퍼체인은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아시아 식품과 각종 냉동 해산물을 많이 진열해놓고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지 거주 한국인들은 Tiv Tam에서 웬만한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싱싱한 채소류는 텔아비브 남쪽 재래시장인 카르멜 마켓에서 배추, 부추, 양파, 쇠고기, 생선류 등을 구입한다. 이 곳에는 아시아 식료품 전문 취급 가게인 East and West 도 있다. 그러나 간혹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3) 특산품

사해에서 나오는 진흙 비누, 머드팩 등 여성용 화장품이 유명하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온 경우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십자가, 주물로 만든 예루살렘성, 각종 성지순례 서적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식료품으로는 대추나 꿀을 살 수도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연락처

- ○ 경찰 긴급연락 번호: 100
- ○ 응급치료 긴급연락 번호: 101
- ○ 화재 긴급연락 번호: 102

○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 38 Chen Blvd. Tel Aviv
- Tel: 03-696-3244
- Fax: 03-696-3243

나. KOTRA 텔아비브무역관

○ 8th Fl. Aviv Tower B, 48 Menahem Begin Rd. Tel Aviv
○ Tel: 03-639-6488
○ Fax: 03-639-6489
○ 근무시간 : 월요일 ~ 목요일 7:30~17:00
금요일 7:30~ 14:00

다. 이스라엘 한인교회

○ 33 Nablus Rd. Jerusalem
○ Tel: 02-586-6808

라. 이스라엘 한인회

○ www.israelhanin.org

마. 이스라엘 기관 단체

○ Israel Investment Center
- 소속: 이스라엘 통산부 산하 투자지원센타
- 업무: 특별투자 인센티브와 외국인의 이스라엘내 회사설립 업무 종합적 지원
- 8 King David St, Jerusalem, 94101
- Tel: (972-2)622-0373~5
- Fax: (972-2)623-1468

○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srael Industry House
- 29 Hamered Street, P.O.Box 50022 Telaviv 61500
- Tel: 972-3-519-8832
- Fax: 972-3-510-3154

○ Federation of Israeli Chambers of Commerce
- 84 Hahashmonaim Street P.O.Box 20027 Tel Aviv 61200
- Tel: 972-3-563-1020
- Fax: 972-3-561-9027

○ Israel Export Institute Industry House
- 29 Hamered Street, P.O.Box 50084 Tel Aviv 61500
- Tel: 972-3-514-2830
- Fax: 972-3-662-2881

13. 관광명소

가. 갈릴리지역

1)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고대도시로 나훔 예언자의 마을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다. 이 곳은 성서에 예수 이전부터 아코에서 다마스커스를 지나 바빌론으로 통하는 중요한 중계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예수가 이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버나움에는 유대인 회당의 유적과 베드로의 집터 위에 5세기경에 세워졌던 교회의 유적 등이 남아 있다.

2) 오병이어교회

갈릴리 호수 북서편 타브가(Tabgha)에는 '오병이어 교회'가 있다. 이 교회의 바닥에 예수의 기적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나타내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 교회 자리에서 행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옆에는 요한복음(21:16)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직책을 맡기 셨다 하여서 로마 천주교의 프갠시스칸들이 지은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다.

3) 팔복교회

타브가와 가버나움 사이 경사진 언덕이 '축복의 산'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유명한 산상설교(The Sermon on the Mount)를 하셨다(마 5:1-10).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덟가지 복을 상징하는 팔각형의 팔복교회는 1938년 안토니오 바루치(Antonio Barluzzi)에 의해 지어졌다.

4) 가나

갈릴리 호수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내륙 도로를 타고 조금 내려오면 예수께서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요 2:1-11) 가나라는 조그만 동리가 있다.

가나에는 희랍 정교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서로 이웃하여 각기 자기들의 교회가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 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나자렛

이스라엘의 비옥한 농경지 이즈르엘 평야 가까이에 있는 작은 언덕에 둘러싸인 도시로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곳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는 이집트 피난을 마친 후 아버지 요셉과 나사렛으로 돌아와 30년 동안 이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더불어 전세계의 순례객들이 찾는 성지이며 서기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부탁으로 마리아의 집터에 교회를 세웠으나 이후 7세기에는 회교도의 점령, 11세기 십자군의 침공, 살라딘의 역습등으로 무수한 붕괴와 재건을 되풀이 했으며, 오스만터어키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17세기부터 비로소 프란체스꼬 수도사들이 나사렛에 사는것이 허락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곳에는 마리아가 예수 수태를 고지받은 동굴위에 세워진 "수태고지교회"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공일을 했던 곳에

세워진 성요셉교회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유대교의 시나고그에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메시아 강림에 관한 부분을 낭독하고 예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장소인 '시나고그 교회'와 마리아가 물을 길었던 마리아 우물 등이 있다.

6) 다볼산

이즈르엘 골짜기에 위치한 해발 588m의 종모양을 한 산으로 다볼산 정상에는 서기 4세기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에 서기 1921년 프란치스꼬 수도회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변화(Trasfiguration)를 기념하고 있으며, 십자군시대의 성벽과 건물의 유적이 있다. 그리이스 정교회의 엘리아 기념교회도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7) 므깃도

므깃도는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르는 바닷길목(비아마리스: Via Maris)으로 이즈르엘 평야 중에서도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 요충지이다. 오랜 옛날부터 제국의 군대는 이곳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밖에 없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솔로몬 왕은 므깃도의 중요성을 감안 이곳을 강화시켰고 이 지역을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나 서기913년경 애굽의 시삭은 므깃도를 파괴하고, 이후 아합 왕때 다시 재건 되었다. 유대왕 요시아가 북진하는 애굽군대를 이곳에서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며 서기 1917년 영국의 알렌비장군이 터어키군을 패배시켜 승리로 이끈 곳도 므깃도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게돈(하르마게돈)」은 므깃도라는 히브리 말을 히랍어로 옮긴 말이다. 므깃도는 1925-1939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 의해 발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곳은 기원 4,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었던 산당식 신전, 솔로몬의 마굿간 등이 발견되었다. 므깃도는 이집트의 기원전 15세기 문서에 언급된 도시로 헬라시대에 쇠퇴되었다.

8) 마사다

유대인들이 주후 65-66년 사이에 당시 식민통치하에 있던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는 디도장군에게 반란의 진압을 명하였다. 70년 4월에 시작된 전투가 70년 8월 28일 예루살렘 멸망으로 종결되는 듯 했으나 살아남은 자중 960명의 사람들이 엘리에셀 장군의 지휘하에 마사다를 최후의 항전지로 삼게 되었다. 로마는 이들의 뒤를 쫓아 10군단 1만 5천명이 마사다를 포위했고 이곳에서 73년 5월2일 멸망당할 때까지 3년여간을 960명이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군 1만 5천명과 결사항전을 하게 된다. 높이 450m 둘레 1,280m 길이 남북 800m, 동서 300m가 되는 천연요새인 바위 암벽 마사다는 BC 30년 헤롯 대왕에 의해서 현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어졌고 동서 남북의 절벽위에 다시 높이 3.5m의 성벽을 쌓았고, 38개의 망대를 설치하여 난공 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

마사다를 쉽게 함락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로마는 다른곳의 반란 진압 후 잡힌 유대인 포로들을 동원하여 가장 낮은 서쪽 지역에 토성을 쌓아 올렸고 결국 이 작전이 성공하여 마사다가 점령당하게 된다. 하지만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쟁을 하던 960명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이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날밤에 모두 모여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기를 택하고 모든 사람이 자결을 하게 된다.

현재 마사다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헤롯의 궁전, 로마시대의 목욕탕, 로마군의 포위 진지와 토성 등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Ⅴ.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이스라엘 국제입찰 제도

1) 국제입찰 제도 개요

이스라엘은 1997년 WTO회원국이 되면서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협정 서명국에게 정부조달시장 문호를 개방하고있다.

2) 한국의 입찰참여

이스라엘에서의 각종 국제입찰은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해왔다. 그러나 1993년 현대 중공업이 사해 화력 발전소 건설 입찰수주를 시작으로 96년 LG전선이 초고압 전선 입찰에 낙찰 되었고, 97년 5월에는 현대 중공업이 아쉬켈론 석탄하역 부두공사를 수주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아졌다. 이스라엘 전력공사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연초부터 부문별로 입찰을 발주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분야별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이스라엘 입찰시장 진출 걸림돌은 이스라엘이 미국/EU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한국기업은 입찰물자의 품목과 설비에 따라 관세율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현지 정부기관 입찰의 경우 낙찰 조건이 복잡하고 준비기간도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낙찰활동

이스라엘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기술과 금융조건등에 관한 실무적인 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대표나 여타정치세력가를 동원하는 로비는 기대한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찰에서의 낙찰을 위해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현지실력가와 인맥이 좋다는 에이전트보다는 실무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스라엘 정부구매 입찰제도에서의 특이점은 입찰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대응구매로 이스라엘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4) 정부조달

美-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발주 입찰 등 정부조달 시장에 미국 제조업체가 참여할 경우 현지 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있다. 따라서 국방부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첨단 기계류 및 자동차, 전자장비등은 이스라엘 내 에이전트를 활용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장비의 수선, 유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합작투자나 대응구매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공급자에게 대응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로 공동개발, 공동생산, 합작투자 등 산업 협력분야가 주종을 이루고있다. 이스라엘 제품의 대응구매요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 현지부품사용 의무조항도 많이 선호

되고 있으나 산업협력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공급계약서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000불 이상을 구매하는 공공 에이전트나 공기업의 경우 Offset 요구를 위해 이스라엘 협력청(Israel Cooperation Authority)으로부터 결제를 획득해야 하며 이곳에서 옵셋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옵셋 요구형태나 대응 구매 비율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주로공급자의 구매능력, 사업규모, 이스라엘 내 관련산업의 존재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응구매 비율은 평균 총 구매가치의 20- 35%임) 원자재나 일반상품 구입은 옵셋조건에서 제외되며, 대응구매상품으로는 이스라엘의 경쟁력 있는 첨단전자나 기술제품구입이 주로 권장되고 있다. 대응구매기간은 3 - 6년이다.

美-이스라엘 자유 무역협정에 따라 미 공급자들에게는 민간구매에 한해 옵셋조항을 완화 하였으며, 적용 금액도 50만불 이상의 구매에만 옵셋조항을 삽입키로 하였다. (대응구매 비율도 40% ->20%로 줄임)

나. 이스라엘의 국제입찰시 OFF SET조항

1) WTO의 옵셋관련 규정

○ WTO 규정에서의 "국제입찰 시 off set 조항"
- WTO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XVI조 규정
- 동 조항에서는 Offset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본 협정 가입시의 양허 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off set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외는 입찰참여 절차상의 조건으로서만 허용되며, 낙찰자 선정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각국별 가입조건은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음.

2) 이스라엘의 경우

○ GPA 부속서에 이스라엘의 Offset 구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조건하에서 Offset 구매 사용 가능함.

< 이스라엘의 부속서 Note 1항 >

○ 입찰 공고 시에 옵셋 조건이 있음을 밝히고, 계약 서류상에도 명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가격이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상업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없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어떤 형태의 Offset 조항도 계약액의 35%를 넘을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동 협정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 후에는 30%, 9년 후에는 20% 이하로 그 비중을 하향조정 하여야 함.

○ 이스라엘은 상기 Offset 비중을 조정하는 5년 및 9년 후 동 Offset 관련 조항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WTO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부속서 Note 2. (a) 항)

○ 이스라엘은 Offset 구매 비중이 20% 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는 그 적절한 수준에 대해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결정함. (부속서 Note 2. (b)항)

○ 옵셋 성취결과 보고방법
- 매년 1회 12월 31일까지 당 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보고
- 보고내용은 구매 또는 주문내용을 기재하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내 해당 공장, 구매 조건(금액포함) 등임
-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이스라엘 해당 공장에 증빙자료 요구하여 증빙되는 부분만 인정함
-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 간 실적에 대해서는 Shipping Document를 제시해야 함

○ 관련기관
- 명칭: Ministry of Industry & Trade 산하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 (ICA)
- 책임자 Ephraim Shoham, Head of ICA
- 부책임자 Gabriel Golomb, Deputy Head of ICA
- 주소: 76 Mazeh St., Tel-Aviv 61140, Israel
- 전화: 972-3-560-7810
- 팩스: 972-3-560-7813
- 구매 규모가 $500,000 이상인 경우 옵셋조건 대상이 됨
- 구매규모가 $5,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20% 이상은
- 이스라엘 물자를 구매하여야 하고, 나머지 15%는 기타 조건으로 성취 가능
- 그러나 모든 입찰 시 마다 정형화 되지 않고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옵셋 조항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Penalty는 없으나 해당 업체는 차기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됨
- 관련 홈페이지 www.ica.gov.il

다. 이스라엘 정부 조달제도

1) 개요

□ 법규

이스라엘에는 정부나 국영기업의 조달/입찰 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기구는 없으며, 각 부처 또는 국영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 및 입찰 실시함

따라서 각 정부기관은 1994. 12.30일 제정되어 1995. 1.1일부터 시행중인 "입찰 의무법(Mandatory Tenders Regulations - preference for Israel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에 따라 모든 조달 및 입찰을 실시함

“입찰 의무법”은 입찰기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함과 동시에, 외국 업체가 수주할 경우 이스라엘 내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WTO지침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WTO 정부조달협정 부속서에 예외국으로 인정되고 있음. 다만 연차적으로 완화하여 계약액의 35%로 되어있는 옵셋을 9년 후에는 20%까지 낮추도록 되어 있음.

해외기업의 의무이행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산업 통상부 산하에 산업 협력청(ICA, Industrial Cooperation Authority)을 운영하고 있음

□ 분야별 시장규모

이스라엘이 추진 또는 준비중인 총 입찰규모는 플랜트 기준으로 $52억 상당이며, 분야별로는 교통 $35억, 에너지 $8억, 물 관련 사업 $5억, 주택 등 $4억 등임

2002년 발주 주요 내용은 바이오테크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80백만, 담수화 공장 건설 $100백만 등임

2003년도 발주예정 프로젝트로는 가이사랴 담수화 공장 $220백만(계약시기2003. 9월), 네게브 담수화 공장 $100백만(2003. 12월), IPP-Rotem's Plane $200백만(2003. 4월), New IPP's $200백만(2004. 3월), Natural Gas Transmission System $10백만(2003. 12월) 등임

정부물품 조달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지 않고 있어 조달규모는 파악이 안되고 있음. 정부조달은 일반물품 조달, 군수품 조달, 지방정부 조달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일반물품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

□ 조달(구매입찰) 절차

○ 사전조사 및 프로젝트 결정 단계
- 사양 결정 (입찰 예정가격)
- 입찰 사양 결정은 실무부서가 정하여 입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 응찰업체의 사양이 미미한 정도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사양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위원회는 이를 제외시킬 수 있음
- 입찰에 부치는 물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은 입찰서류에 포함 명시됨
- 입찰 예정가는 모든 입찰의 공고 이전에 산정하여야 함

- 입찰 예정가를 산정하는 목적은
  · 공개입찰, 지명입찰, GPA입찰, 입찰면제를 정하는데 자료로 활용
  · 예산 내 입찰여부 검증
  · 덤핑응찰 또는 적정응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 예정가는 공급자들로부터 비공식 가격접수 또는 전문가 자문 등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산정

□ 계약체결 방침 결정

○ 입찰위원회
- 정부 부처와 국영회사들은 자체 입찰위원회를 둠
- 정부부처: Director General, 재무담당관, 법률고문 포함 5명 이내
- 국영회사: 3명 이상으로 구성

○ 입찰면제위원회
- 정부 내에 입찰면제위원회를 두어 입찰을 면제할 수 있는지 심의하며 재무부가 관할
- 기본적으로 면제범위는 다음 30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함
- 주요 기준: NIS42,000미만, 긴급구매, 공개입찰 시 국가안전 저해여부, 과거 3년 내의 동일입찰 여부검토, 공개입찰 응찰자가 없거나 적정응찰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 여부결정

○ 평가기준 설정
- 실무부서가 작성한 평가기준을 입찰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
- 입찰위원회 결정 방법은 다수결임

□ 입찰공고 및 접수

○ 입찰 공고
- 규정 15조에 따라, 이스라엘 내 히브리어판 일간지, 아랍어판 일간지, 1개 이상의 인터넷 웹사이트(주로 http://michrazim.lapam.gov.il 또는 자체 웹사이트)에 공고
- 공고 내용에는 구매내용, 계약기간, 입찰절차, 입찰서류 구입처 및 문의처, 입찰서류 제출장소 및 마감일을 포함하여야 함
- 입찰 공고 중에는 국내업체 우대조건, 예정가격이 NIS2,1000,000일 경우에는 입찰 의무법 수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입찰 설명회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복잡하거나 대규모 입찰인 경우 실시

○ 입찰 참여자격 및 사전 리스트
- 지명 입찰 시에는 5개 이상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함.
- 규정 6조에 입찰참여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 즉, 해당 라이센스 보유, 해당 등록 여부, 이스라엘 규격준수 여부, 법이 정하는 회사요건 여부(예 세금납부) 등

○ 서류 접수기간
- 규정상 서류접수기간을 정하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Section 18은 입찰서류 제출 기간 내에 지정장소에 제출하도록만 명시
- 그러나 GPA 11조에 의하면, 공고 시부터 마감일까지 4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함
-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은 입찰 공고에 포함됨
-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입찰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서류 구성

○ 입찰서류(판매용)
- 입찰서류에는 입찰조건, 참가자 조건, 프로포잘 양식, 계약서 Text, 지불조건, 필요시 계약조건보증기간 및 조건, 낙찰자 선정조건 명시
- GPA 입찰일 경우에는 입찰서류 작성 언어, 기술조건, 재정보증 명시
- 입찰서류 구입처는 입찰공고에 명시됨
- 서류가격은 입찰규모에 따라 커지며, 큰 입찰의 경우 수 천 달러나 됨

○ 입찰서류(제출용)
- 프로포잘 (소정 양식)
- 필요 시 응찰금액 내역(부가세, 세금, 관세, 운임 등), 지불통화, 희망 지불조건
- 입찰 의무법 이행 각서 (해당 카테고리일 경우)
- 필요 시 공급 물품이나 서비스의 사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Laboratory report, 기술/디자인 도면, 작동방법, 설치방법, 품질 관련 서류 제출
- 필요 시 공사/공급 경험, 경력, 연간매출, 제3자 추천서, 해당 입찰건과 동시에 진행할 타 공사 가격 및 수량 등을 요구함

- 은행보증서 1-2개, 보통 입찰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
- 기타 입찰서류에 명시된 서류들
- 입찰수수료

○ 입찰서류 접수
- 입찰서류 접수 장소는 입찰공고에 포함됨
- 입찰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음

□ 입찰서류 심사단계

○ 서류 개봉
- 모든 입찰서류는 규정 18-19 Section에 명시된 대로 Sealed tender envelope에 넣은 채 입찰위원회가 비치한 Tender box에 넣어야 함
- Tender Box에 들어있는 서류는 입찰위원회가 마지막 날 동시에 개봉할 때까지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됨

○ 응찰자 심사 기준
- 응찰자 자격은 입찰기관이 정하여 입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서류에 명시되며, 별도 심사기준은 없음
- 주로 자격소지여부 등 상식적인 수준이며, 원칙적으로 개방적임

□ 낙찰자 결정단계

○ 낙찰 예정자 추천

- 입찰위원회는 응찰자들의 서류를 개봉하여 규정 Section 20에 따라 필요시 응찰자들을 접촉하여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거나 경미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수정해 줌

- 입찰위원회는 기술상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입찰서류를 검토하게 한 후 조언을 받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위원회는 잠재낙찰자와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네고를 할 수 있음

- 입찰위원회는 네고를 끝낸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네고를 했던 업체에게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프로포잘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음.

- 이스라엘 대법원은 경미한 부분에 대한 수정만 인정하고, 네고를 통해 근본적인 응찰 내용이나 입찰조건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함

○ 최종 낙찰자 선정

- 최종 낙찰자는 입찰위원회가 선정하며, 동시에 적정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권한도 있음

- 입찰 위원회는 최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기본적으로 낙찰자로 선정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즉 품질, 수행능력, 경력, 이전 입찰 수행 시 문제점, 제3자 추천 등이 작용할 수 있음

○ 입찰결과 설명

- 낙찰자 선정은 분명하고, 상식적이며, 다른 응찰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왜 그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모든 응찰자 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응찰자 들에게 알려줌

- 입찰결과 설명은 가격 50%, 기술문제 40%, 경력 10% 등의 방식으로 객관화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경우 가장 유리하게 됨

○ 계약단계
- 계약은 이미 입찰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입찰서류를 사용하여 실시함
- 대부분의 정부입찰은 입찰유형에 따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함

□ 입찰 참가자격

○ 이스라엘은 가장 민주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규정, 입찰서류에 명시된 자격자는 누구나 응찰할 수 있으며,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모든 입찰에서 문호는 개방되어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 등의 방식으로 상식적인 제한만 두어 입찰서류에 명시함

□ 이스라엘 입찰 의무법 요약

○ 법명: Mandatory Tender Law, 5752-1992 (1992.3.3통과, 1993.5.16 발효)
○ 규정명: Mandatory Tenders Regulations, 5775-1995 - Preference for Israeli Products and Mandatory Business Cooperation, 1994.12.30제정, 1995.1.1 발효

○ 이스라엘산 물품구입 우대

- 외국기업 응찰 가격이 자국기업보다 15% 이상 저렴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산 구매 가능

- 미화 1천만 불 이상의 물품 조달인 경우, 입찰측은 해외응찰인과의 계약분을 전체 구매액의 50% 까지로 제한 가능
  · 국내 응찰인이 해외 최저 응찰가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 동 입찰은 해외 50%, 국내 50%로 분할됨. 국내 응찰자가 없을 경우 전량 해외응찰자가 수주

○ 산업협력 의무

- 해외 응찰자가 NIS2,100,000(미화 약50만불) 이상의 입찰을 수주한 경우 협력의무각서 제출 후 수행 필요

- 즉 이스라엘 국내기업에 하청, 투자, 기술이전, 이스라엘 국내물품 또는 용역 구입

- 계약액의 35%을 산업협력으로 이행해야 함. 단 해외기업이 유일한 응찰자인 경우, 연료 구입 계약, 국익에 반할 경우, 특수한 계약인 경우에는 면제 또는 35%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미화 5백만불 초과하는 계약이고, 기술관련 분야이며, ICA가 국내기술관련 산업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청을 수용할 국내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 낙찰기업은 계약액의 20% 이상을 국내기업에 하청해야 함

- 이상 의무에 대해 WTO 규정은 입찰참여 절차상의 조건으로서만 허용하고 낙찰자 선정 조건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ICA는 외형적으로는 의무이행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도 차후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제재나 벌칙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입찰 의무법 적용 예외: 군수품, 정유, 중앙은행의 화폐제작 관련 조달

□ 발주기관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
-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절차는 투명하며 공정하게 평가됨.
- 한국기업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가지고 있거나 기피하는 일은 없음.
- 과거 한국이 수주한 입찰관련 기관을 접촉 결과 “동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대형 플랜트에 참가하고 있어서 과거 구미제국만 참가하던 때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함
-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 유럽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가깝고 관습이 비슷하여 선호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구미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기자재 반입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 평가 기준
- 입찰위원회는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기본적으로 낙찰자로 선정함. 즉 품질, 수행능력, 경력, 이전의 입찰 수행 시 문제점, 제3자 추천 등이 작용할 수 있음
- 기타 평가기준은 모두 입찰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되며,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음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 기본원칙

이스라엘은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직물, 의류, 신발, 자동차 등의 개별허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며, 물량 규제도 없다.

미국과 EU 등 세계 3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유망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양국간의 무관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자세로 무산된 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이스라엘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력수출품인 하이테크 제품이 사실상 무관세로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국가들과의 협정체결 등이 종결된 후 이스라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의 협정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허가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농산물, 주류, 일부 직물, 폭발 및 인화성 물질, 특수기계, 금속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 독점 구매 품목이던 콩, 밀 등의 농산물은 수입이 자유로워 졌으며, 주로 식품가공 업체들이 직접 수입하고 있다. (현재는 육류만이 정부구매 품목으로 남아 있다)

수입허가서는 주로 통산부, 보건부, 교통부에서 발급되며, 신청자는 이스라엘 등록법인이거나 거주 개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이외에 귀금속, 직물, 의류, 신발,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에는 건 별로 통산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이며, 상품에 따라 이보다 길다. 수입허가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적 전 검사제도는 없다.

다. 반덤핑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입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또는 물량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반덤핑법을 1977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품과 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는 향후 시장관리와 상품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수입 절차

수입물품에 대한 외화 지급 및 배당은 관련 서류(L/C, 선적 서류 등)를 시중 은행에 제출해 자동 승인을 받는다. 수입품에 대한 선불은 수입가격의 35% 이내 또는 5만 달러 중 높은 금액에 한해 허용된다.

바. 자유무역 협정

이스라엘은 2001년 6월에 루마니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06년 현재까지 세계 29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최다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이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정체결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국가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스라엘이 자유무역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는 길이 열릴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시장이 개방 되더라도 자국 산업에 해가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자유무역 협정 이외에도 23개국과 투자보증 협정을 맺고 있으며, 26개국과 이중과세보장협정을 맺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R&D협정을 맺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29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막,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 투자보장협정 체결 국가(23개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중국,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인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고,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가(26개국):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싱가폴, 첵코, 덴막,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이태리, 자마이카, 일본, 네델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 R&D협정 체결국가(12개국): 미국, 캐나다, 한국, 몰도바, 영국(이상 자금 관련), 프랑스, 네델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중국, 홍콩(이상 협력 관련)

○ MFN 무역협정 체결 국가(6개국): 중국, 요르단,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자료원: 이스라엘 외무부)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요

이스라엘은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증대와 동시에 좋은 상품을 국민에게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EU 등 세계 30여 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수입관리제도편 참조)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평균 7%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 이외에 일부 품목의 경우 구매세와 16.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상당수의 품목이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북미와 EU 국가산들과의 가격경쟁력이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관세 분류 방식으로 HS 코드를 채택하고 있다.

나. 관세 부과

중량세나 종합세 부과 등 특별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관세율은 CIF 기준 평균 8%로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최저 0.8% 에서 최고 80%까지 부과된다.

- 기초 원료, 농업 및 산업용 기계류 등은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 반면, 사치성 소비제품, 고급식품, 이스라엘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최고 관세율이 부과된다.
- 미국산과 EU산은 대부분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며 2군 품목의 경우 최혜국으로 분류하여 30%가 부과됨.

그 외 1900개의 3군 품목은 정상 과세가 부과된다.

18. 주요인증제도

이스라엘은 국민 안전과 건강과 관련, 주요 분야별 수입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구가 표준규격청(Israeli Standard Institute)이다. 이 기관은 신규 수입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규격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보건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고, 식료품의 경우 랍비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이스라엘로 수출하려고 할 때 미리 바이어에게 법규와 허가 절차를 사전 문의하는 것이 추후 예상치 않은 난관을 피할 수 있다. 더욱 안전한 절차는 바이어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입 허가 법규와 행정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를 입수하여 무역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지 바이어가 국내 기업에게 수입 주문을 해놓고 선적 직전에 수입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대금결제 또는 L/C 개설을 지연시키면서 과도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제 3국 거래선을 통해 헐값에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9. 지적재산권

가. 지적 재산권 일반

이스라엘은 하이테크는 물론 기초과학이 발달하여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과 각종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극히 중요하므로 이스라엘에서는 특허 정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와 지적재산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광범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해서는 그 규모는 작으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분야에서 공업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지역과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 곳에 훌륭한 시설물들을 설립해 전문지식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자연과학, 토목, 농업, 의학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다.

기초과학 지식은 이스라엘 대학들의 주요 과제이며, 유태인 저자의 출판물은 주로 대학교의 출판물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과학은 젊고 성장하고 있다. 논문당 평균 인용도 세계과학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 과학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회의 참가뿐 아니라 박사과정 연구와 해외연구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외국 단체와의 협력으로 실시되고 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연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연구소이며,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이스라엘 모든 대학에 설치되고 있다.

나. 특허권

이스라엘은 파리협약 회원국으로 물질특허의 경우 권리획득 이후 20년간 보호되며, 그 이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특허는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외국인은 특허 보호를 위해 현지주소, 성명 등을 명시해 외국인 특허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스라엘 현지 변리사, 변호사를 활용하여 쉽게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청양식 기재, 도면 작성, 권리보호 범위 지정 등은 히브리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특허. 의장 관보에 공고된다.

공고된 후 3개월 이내면 누구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최종심사까지는 무려 3년이 소요된다. 그 이후 인증, 공고 등의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안기술 특허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즉시 심사를 하게 된다.

인체나 새로운 동식물 실험의 특허신청은 금지되나 약품제도, 검사법 등은 물질특허에 해당된다.

특허는 인증 후 3년이 경과하면 갱신이 필요하다.

다. 상표 및 의장

상표 보호기간은 7년이며, 이후 7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1972년 제정된 상표법에 따르는데, 등록 전 반드시 유사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주로 상품소유주, 외국인의 경우 현지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 관례이다. 상표도 상표관보에 공고되며, 공고 후 제3자는 3개월 이내에 상표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2년 이상 사용치 않을 경우에도 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장권은 5년간 보호되며, 저작권은 베른협약국으로 70년간(미술, 예술작품은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에는 주로 번역, 비디오, 오디오 레코드,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전체 신청 건수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적인 비평, 연구, 조사 등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소비자보호제도

이스라엘은 소비자 보호를 매우 중시하여 자동차는 물론 일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보증수리 등 애프터 서비스 제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대개 보증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보증수리 기간이 끝난 것을 우려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를 스스로 챙긴다. 컴퓨터구입의 경우 각 부품마다 보증기간을 두어 소비자 마케팅을 하고 있다. 판매국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이스라엘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한국차의 약진도 신속하고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이행하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얻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도 소비자들은 품질보증서를 챙기므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바이어가 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상품으로는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고가상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가를 지불하는 대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이스라엘 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www.cbs.gov.il
- 상공노동부: www.moit.gov.il (메인화면에서 English 클릭)
- 외무부: www.mfa.gov.il
- 정보통신부: www.moc.gov.il
- 재무부 세무정보: www.mof.gov.il/taxes
- 전력공사(입찰정보): www.iec.co.il
- 전시정보: www.israel-trade-fairs.com
- 제조업체협회(우리나라 전경련 유사조직): www.industry.org.il
- 수출공사(KOTRA 유사 조직): www.export.gov.il (메인화면에서 언어선택)
- 중앙은행(Bank of Israel): www.boi.gov.il

22. 시장특성

가. 시장규모

이스라엘은 인구 704만명(06년 기준)의 소 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 17,841불(05년 기준)의 고소득을 기반으로 연간 443억불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이스라엘은 원자재 생산이 빈약하여 수입품의 70%가 원자재이며, 투자재는 17%, 그리고 일반 소비재가 13%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수출입은 70%가 미국과 유럽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들 국가 및 경제권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무관세 수출입이 교역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나. 시장 특성

시장 특징으로는 중동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평화협상이 교착상태 또는 퇴보할 때 인근국과의 긴장으로 일반 상행위나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본의 회수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06년 8월 기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유혈 충돌은 이스라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의 폭락과 함께 나스닥에 등록한 하이테크 업체가 120여 개에 달하는 이스라엘 경기도 심각한 하락국면을 보인 바 있다. 즉 이스라엘의 시장 특성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미 의존도가 높아 미국 경기와 이-팔 관계,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 등 주변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06년도 1분기 이스라엘의 총생산은 6% 성장하면서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했으나 7월 12일부터 약 한달간의 레바논 전쟁으로 인해 2006년 총생산이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300만명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1600불 수준으로서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다. 한국상품 인지도

우리 기업들은 아랍권의 대이스라엘 보이콧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기피해왔으나 1990년 1차 걸프전과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을 기점으로 아랍보이콧 정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화학원료, 섬의류, 전자/통신부품과 같은 상품 수출이 본격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부두 석탄 하역설비, 초고압전선 매설, 발전소 수리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국산 차에 대한 호평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의 국제적인 평판과 더불어 국산차 전반적인 이미지가 급격히 상승하여 현지 신차 판매 월별 실적에서 현대가 1위를 차지하기도 할 정도로 국산차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 참고로 지난해 한국차는 34,178대가 팔려 일본(66,930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차를 이스라엘에 판매했으며, 금년에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진출한 휴대폰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제품이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휴대폰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제품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PDP/LCD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주력 수출품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여타의 웬만한 상품도 성능에 있어서 별달리 의심을 받지않고 한국기업이라면 그런 제품 정도는 문제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

일반 상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수주한 몇 건의 발전 관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성실성이 발주처인 이스라엘 전력공사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사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에 발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라. 유통 채널

일반 수출 상품의 경우, 대개 현지 에이전트 또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수출하게 된다. 현지 독점 거래선 지정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는 보통 바이어 직수입 또는 전문 수입에이전트의 중개 거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특히 유행과 디자인이 계절별로 변하는 직물 부문에서 중개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활발하다. 그 절차는 직물 도매상은 복수 또는 단수의 수입 에이전트를 두고 그로 하여금 최신 유행제품의 정보를 입수하여 심사 후 수입을 결정하면 그 에이전트는 수출업체에게 커미션을 요구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때 중간 에이전트에게 불필요한 커미션을 지불한다는 사고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정 비율의 커미션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유대상인들은 한번 거래하게 되면 계속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선 발굴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신규 거래선 발굴시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오퍼의 가격과 기존 거래선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1차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그것이 수용 안되는 경우 거래선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는다.

유대상인들은 대개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것저것 잡화점식 거래는 잘 하지 않는다. 한가지 분야에 수 십 년간 거래하는 사람 또는 대를 이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과 공급선에 대한 깊숙한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 수집 채널은 해당 품목의 세계 전시회 참관이다. 전시회를 비즈니스 정보 수집원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상인들과의 오프라인 접촉은 전시회가 최고라 하겠다.

회사 사정이 국제전시회 참가가 여의치 않는 기업 또는 보다 효율적인 바이어 발굴 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KOTRA가 지원하고 있는 바이어 발굴 조사대행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해외 전시회나 세일즈 출장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100불 남짓한 비용으로 무역관당 해당 품목의 바이어 리스트를 구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이다. 텔아비브 무역관은 이러한 조사를 의뢰 받는 경우 3만여 개 현지 기업 정보를 수록한 고가의 CD롬을 활용하여 잠재 바이어들에게 이메일, 팩스 또는 전화로 접촉하여 조사 의뢰기업의 제품 수입에 관심 있는지를 조사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어의 기본정보와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기존 거래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경우, 구체적인 비즈니스 진행을 위해 현지 세일즈 출장 또는 바이어 방한으로 이어갈 수 있다. 현지 세일즈 출장시 역시 무역관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별적인 바이어 발굴 노력 이외의 방법은 국내 지자체 또는 분야별 조합이나 협회별로 파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활용할 수 있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이스라엘에 수입상들이 주로 참여하는 상공회의소가 있기는 하지만 On Line을 통해 바이어 발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이어 발굴을 위한 DB는 민간 컨설팅회사 Dun&Bradst 매년 업데이팅 하여 제작하는 CD가 있는데, 하나 구입에 약 2000불을 지불해야 한다.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시 유의사항

이스라엘의 유대상인들은 상담 전략이 대화 도중에 턱없는 주장을 하거나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불쑥불쑥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충 상담에 응할 때 이러한 기습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래서 유대인과의 상담 이전에는 판매 또는 교섭의 원칙과 양보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사안일 경우, 본사 또는 사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함. 이스라엘 유대인 상인과의 거래 시 가장 주의가 요청되는 사항은 계약서 작성이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은 계약서 작성을 대충하거나 문구의 표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크게 치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내 모 대기업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사의 고정 에이전트로부터 직물 주문을 받아서 선적을 했는데, 화물이 도착했을 때 수입상으로부터 수취 거부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금결제 은행이 선적서류와 L/C의 화물 단위 표기가 상이하다는 것이었다.

즉, L/C에는 2,000 rolls로 기록되었는데, 선적 서류에는 2,000 pcs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출업체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같은 의미인데, 단지 타이핑이 잘못 되었다고만 했다.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나면서 수출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다녀가고 창고료는 급증했으며 시즌을 놓친 직물의 가격은 급기야 당초 수출가격의 2/3 선에서 겨우 마무리 되었다.

현지 에이전트는 국내 수출업체의 사소한 실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그 같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이어가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L/C 개설 이전에 생산 착수를 요구할지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 중동에서는 "곧" 무엇을 한다는 것이 몇 일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L/C 개설 이전에 바이어 요청대로 먼저 생산을 했을 때, 바이어가 L/C 개설이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생산업체의 조속한 L/C 개설 독촉 이후에는 현지 시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상담가격을 대폭 인하해 달라는 식의 요구가 뒤따를 수도 있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이스라엘 국민이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76%), 무슬림(19.5%), 드루즈인(1.6%), 기독교인(2.9%)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를 철저하게 믿는 정통파와 종교를 그다지 중시하지않는 일반인으로 구분되어 상호 대립이 심하다.

따라서 현지 출장 또는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종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타 종교 또는 다른 종파를 비판하는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일반 유대인들은 대개 시오니스트들로서 비록 종교는 멀리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국가에 대한 애착심은 매우 강한 편이다.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출입국시 당하는 까다로운 보안검색을 불평하거나 중동평화협상에 있어서 친아랍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담을 그러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언동인 바, 주의가 요망된다.

초 정통파 유대인들은 무더운 한 여름에도 검정 모자와 검정 외투 그리고 검정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는 주의가 요망된다. 비록 현지의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 의복을 갖추고 다닌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 수입관행

이스라엘 수입상 중에는 에이전트가 의외로 많다. 이들은 최종 수요처의 주문을 받아서 그들의 이름으로 수입을 하여 중간에서 커미션을 받는다.

보통 1인이 단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 에이전트들은 현지 기업 디렉터리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로부터 오퍼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수입상 신용조사를 은밀하게 하려 해도 공개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십중팔구 개별 수입에이전트다.

이들 에이전트들은 수출업체로부터의 독점권 획득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독점권 요청을 받고 무역관으로 문의해 오는 기업들도 있다. 이 경우는 회사 방침이 1년 간의 거래실적을 지켜 본 이후 독점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 바이어들의 특징은 수입 대금 결제조건을 보통 90일 정도의 유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때로는 L/C 방식의 거래가 아닌 D/A, D/P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간혹 D/A 방식의 거래를 통하여 대금결제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유전스를 수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대금결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L/C방식의 거래가 권장된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유대상인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원한다. 알맹이 없는 겉치레 인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나거나 교신 시 바이어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또는 정확한 질문이 요망된다.

또한 바이어가 요구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로 여긴다. 이는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 가는 것이다. 세일즈 출장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도 마찬가지다.

질문이나 답변에 있어서 명확한 사람이 존중 받는다.

가격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정한 최저가를 철저하게 지킬수록 신뢰감을 준다. 가격인하가 계속 먹혀 들어 가면 이 또한 신뢰성을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공산이 크다.

유대인들의 거래방식은 간단하다. 경쟁사로부터 XX의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한국업체는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식의 단도직입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때 경쟁사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견적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경쟁사의 가격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격 인하가 어려울 경우는 자사의 제품의 장점이 가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계약서의 중요성

유대인들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계약을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설계도와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한번 체결된 계약을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우리 기업과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한국인들은 계약서에 싸인을 해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딜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딜은 계약 체결로 종결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계약 내용은 일을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약 체결이 딜의 종결로 인식해야 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나. 계약조건은 꼼꼼하게 살필 것

계약서에 한번 싸인을 하고 나면 사소한 조건 하나 변경을 하려면 매우 힘든 과정뿐만 아니라 적지않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계약서 싸인 후 비즈니스 추진 도중에 예상치 못한 조건에 걸려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 표현이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줄 몰랐다.”는 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오퍼 또는 계약서 초안을 수취했을 때 문자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소한 조건이나 모르는 용어가 삽입되어 있으면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 사전에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 요구 사항을 계약서에 모두 삽입시킬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 거래할 때 상대방 입장이나 위신도 중시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명확하게 계약서에 삽입하지않고 상대방을 믿는다는 식으로 말로만 무엇을 해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러한 근거 없는 구두 약속은 무시되기 일쑤고,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 소송으로 갈 때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 내용이다.

27. 통관절차

가. 통관 서류

○ 상업송장 3부와 선하증권: 환적 가능하고 도착지 내 에이전트명 및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 보험 증권, 포장지 명세서, 수입 허가서

○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은 원산지 증명국의 특별 확인증 첨부

○ 원산지 증명서: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서 원산지 및 제조 업체명을 기입하여 상공 회의소에서 발급 받는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는 시장개척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Made in korea는 도움이 되며, 이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으로 오해받기 쉽다.

○ 포장명세서: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포장명세서가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파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토록 되어 있다. 파레트나 컨테이너 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나. 특기 사항

○ 대 이스라엘 수출 시 유의할 사항은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식료품의 경우 코셔르 증명서가 필요하다. (Kosher Department, 58 King George St. Jerusalem 전화(972-2) 24-3484)

* 코셔르 란?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음식법.
  - 예: 라면의 경우 돼지고기나 그 기름으로 제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다. 수입 통관

○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 된다. (10톤 이하 30일)

○ 관세청 통관 담당자에게 통관 신고만 하면, 환적 및 재수출 하역도 가능하며 90일 이내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 되어야 함
-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사용료 지불 불문)
- 보관세 징수 가능해야 함.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 할 경우 라벨 부착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각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함.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함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라. 통관 유의사항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품은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 통관되며, 통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28. 운송

가. 무역항

○ 이스라엘에는 3 대 항구(하이파, 아쉬돗 그리고 에일랏)가 있다. 이 3 대 항구가 이스라엘 수출화물 98%를 처리하는데, 2004 년 처리 실적은 총 3700 만 톤이었다. (2006 년 8 월 입수가능 최신통계)

○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할 경우, 일반 상품은 대개 텔아비브 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쉬돗 아니면 북쪽 항구도시 하이파에 도착하게 된다. 에일랏항은 자동차 하역항으로 주로 사용중이다.

○ 3 대 항구 웹사이트
- 하이파: www.haifaport.org.il
- 아쉬돗: www.ashdodport.org.il
- 에일랏: http://www.israports.org.il/cargo/eilat.asp

이스라엘 통관 및 운송업체 리스트

○ A. SUFRIN - CUSTOMS BROKERS
- 7 Rival St., Tel Aviv 67778
- Tel: 03-6878787 Fax: 03-6879797
- E-mail: sufrins@netvisition.net.il
- General Manager: Mr. Arie Sufrin
○ ABE TRANS INTL SHIPPING LINES & FORWARDING
- 42 Herbert Samuel St., Tel-Aviv 63303
- P. O. Box 50383, Tel-Aviv 61500
- Tel: 03-7958888 Fax: 03-5102024
- E-mail: abe@abetrans.net
- General Manager: Mr. Abraham Firian
○ ABIR INTERNATIONAL FORWARDING LTD.
- 14 Yossef Karo St., Tel-Aviv 67014
- Tel: 03-7616565 Fax: 03-5612703
- E-mail: baviram@abir.co.il
- General Manager: Mr. Benny Aviram
○ ADIV LTD.
- 27 Echad Haam St., Tel-Aviv 65141
- Tel: 03-7132222 Fax: 03-7132211
- E-mail: afiv@adivcarog.com
- General Manager: Mr. Efri Tal
○ Amex Ltd.
- 8 Hachortim St., Holon 58812
- Tel: 03-6505650 Fax: 03-5588833
- E-mail:keren.dalora@kvehne-nagel.com
- Sales Manager : Mrs. Keren Dalora

29. 분쟁해결 절차

가. 쌍방 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리 꼼꼼하게 따지고 명확하게 했다고 해도 거래를 하는 과정에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무역분쟁이 대금결제 지연, 불량품 선적, 계약 조건 미 이행, 서류작성 오류 등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금액면에 있어서도 수천불에서 2만불 내외의 범위가 많다. 이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걸기에는 부적합하다. 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 지불하고 나면 남은 이익이 없기 마련이다. 자칫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웬만한 무역분쟁은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위협하면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소송

거래 상대방과의 어떠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소송 이외에 달리 대안이 없는 경우, 우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무역관으로부터 복수의 변호사 추천을 받아 능력과 신뢰성 그리고 비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자료를 이첩 받아 현지 법원에 정식 소송을 걸고 재판 일정에 맞추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를 요청한다. 영문으로 자료 준비하는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서 민사소송 한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5-7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루한 소송으로 결말을 짓기보다는 도중에 쌍방 합의로 종결 짓는 경우가 다반사다.

다. 중재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상사중재원은 없다. 그래서 간혹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시 재판은 이스라엘 법정 또는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키는데, 이 경우 우리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한국 법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삽입시킬 경우, 분쟁 해결 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서류작성 오류

□ 원인

국내 중견 섬유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바이어로부터 웨딩드레스용 패션 직물 2500 Rolls 구입을 위한 L/C를 수취한 후 2500Pcs를 선적했다는 B/L을 발급함. 이 B/L은 바이어 거래은행에서 주문량과 실제 선적한 물량의 단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됨. 즉, 바이어는 직물 2500 마리(Rolls)를 구입하는 것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2500 조각(Pieces)만 보내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었음. 바이어 거래은행은 바이어가 이 같은 단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인수하겠냐고 확인했고, 바이어는 물품 인수를 거절함.

□ 진전

바이어의 이 같은 상황 설명에 대해 국내 수출업체는 신속한 대응 대신 Rolls과 Pieces는 같은 의미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음. 그러는 과정에 바이어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결혼 시즌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당해 수입할 이유가 없었음.

□ 결말

급기야 수출업체 담당자가 이스라엘까지 출장을 와서 헐값에 처분하는 식으로 처리하면서 큰 손실을 안게 되었음.

나. 대금결제 지연

□ 원인

냉온수기 바이어는 국내 수출업체에게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대금결제 지연했는데, 그 이유는 뜨거운 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결여되고 뒷부분 호스가 미 장착되어 있어 이미 공급했던 제품들에 대한 유통업체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수리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었음.

□ 진전

바이어는 그 상태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로 정상제품을 수입할 때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음.

□ 결말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간의 합의로 처리

Ⅵ.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외국기업의 대이스라엘 투자는 팔레스타인 2차 인티파다와 이라크전쟁 분위기가 고조 되던 2002년과 2003년을 경과하고 2004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외국 자본의 대이스라엘 투자 실적은 106억불이었고 2006년 1분기 투자실적이 124억불로 집계되는 등 금년 들어 외국인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7월 외국인 투자 실적 171억불은 직접투자 77억불과 자본시장 투자 76억불 및 기타 18억불로 구성되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4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연간 총 300여건의 13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투자내역

- RADVISION LTD.
  · 2001년 삼성전자(정확하게는 삼성전기 및 삼성벤처 투자)가 이스라엘의 벤처 기업인 RADVISION(첨단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지분 5.78%를 인수하면서 17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삼성전자의 투자는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위함 시범케이스로 널리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삼성의 의지가 돋보여 삼성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2002년 ㈜휴니드 테크놀로지스가 HUNEED Israel(통신기기)를 설립하면서 20만 불을 투자 하였다.

- 2002년 코리아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가 GENOA Color Technologies를 설립하면서 20만 불을 투자하였다.

- 2003년에는 에비엔 코리아가 Leader Holdings & Investments Ltd.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48만 1천 달러를 투자하였다.

- 팔레스타인에는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박현종)가 라말라에 자동차 정비공장 Auto Station을 설립하였으나 2000년 9월말 인티파다 발발로 투자 과정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농업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농군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33.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정책 개요

이스라엘 정부는 중동평화 정착 시 지역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해외 유입 이주민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한 단기적인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 도로 및 항만과 철도 등 인프라시설 확대, 하이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확대가 크거나, 수출 지향 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전혀 없어 자체 경영권을 100% 확보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과실 송금을 위해 투자청에 투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투자는 투자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외 투자는 투기성, 비건전성(공해, 환경 오염 배출 산업 등)이 발견될 경우 등록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 투자청(the Israel Investment Authority)은 정부 각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청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청 접촉은 이스라엘 대사관 상무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 전반적 투자 여건

이스라엘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시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자본공여에서 나타난다. 인텔사의 10억불 투자 규모의 반도체 칩 생산 공장 건설에 6억불을 지원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조업이 현지 직접 진출하기에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조립 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현지의 고임금과 협소한 시장 그리고 복잡한 노동시장 환경을 종합할 때 성공적인 경영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나 업계도 현지의 협소한 시장여건으로 인하여 제조업 육성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90년대 중반부터 국제 첨단기술의 총아로 부상하게 되자 외국의 벤처 캐피탈이 대거 몰려드는 추세다.

연간 총 외국인 투자 자금 30억불 중 대부분이 하이테크 투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에 진출한 미국계 투자회사만 해도 35개사 가량이 된다. 대이스라엘 투자진출은 하이테크 투자 또는 펀드 투자 참여가 권장된다.

인근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대한 노동집약형 제조업 투자진출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1인당 노동자 평균 급여가 500 - 700불에 달함에 따라 서남아나 중국 저임국가와의 경쟁이 용이하지 않은 실상이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중동평화협상의 성과로서 가자지구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단을 조성해 놓고 몇몇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대부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언어가 통하는 이스라엘 또는 이집트 기업들이 수출쿼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섬유제품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 외국인 투자 제한 현황

국방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지분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자체 경영권 100%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위하여 이스라엘 투자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은행, 보험 등 금융산업, 국방관련 산업과 투기성, 비건전산업에 대한 투자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부동산,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이윤의 해외 송금도 자유롭다.

라. 투자유치 원칙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 부문을 방위산업 일부, 발전사업, 철도운송 사업 등에까지 확대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기업 참여 폭을 늘리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그리고 기초화학산업, 연료산업, 특정 방위산업 등 정부 독점 산업에도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마. 투자신청 및 허가

이스라엘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들이 있으므로 투자신청을 하기 전에 이들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유용한 연락처 참조)

투자신청은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투자 회사의 법적 형태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그 후 회사 정관, 회사명, 영업목적, 유한책임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등록을 하면 된다.

투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투자유치 정책편과 외국인 투자제한 편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투자가 지사 설치이거나 현지법인 설립일 경우에는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편을 참고하면 된다.

34. 투자인센티브

가. 투자관련 기본법

○ 투자 촉진법 (Encouragement of Capital Investment Law - 1959)
○ 산업 연구-개발 촉진법(Encouragemen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 1984)
○ 조세촉진법 (Encouragement of Taxes Law - 1969)

나. 투자 인센티브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무상 자금지원, 정부 보증, 조세감면, 면세 기간 공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연구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이스라엘 은행에 외화 표시 외국인 예금은 면세가 된다.

* 분야별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촉진청이나 현지 컨설팅회사 또는 회계&법률회사를 접촉하여 입수할 수 있다.

투자원금에 대한 송환송금은 자유로우며,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그 차입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10만불 이상의 차입금은 상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상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환딜러(이스라엘 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배당금은 납세 후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이자, 로얄티, 경영관리비 등도 납세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

지점의 영업이윤은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송금이 가능하며, 투자금액을 초과 후 발생한 이윤도 외환관리국의 특별승인을 받은 후 송금이 가능하다.

투자장려 업종으로는 기술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분야 등이다.

35. 타당성조사

□ 주요 체크 포인트

- 현지 투자진출 타당성 조사를 일임할 컨설팅 또는 컨설턴트 선임 여건
- 계획 중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지 법규 분석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장려분야 여부 확인
- 직접 투자인 경우 투자 분야와 투자지 위치에 따라 인센티브가 상이한 바 현지 회계사 또는 투자전문 변호사를 통해 인센티브 수혜극대화 전략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 변호사 이용 수수료와 서비스 지원 범위
- 현지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각종 세제와 노동법규 내용
- 금융 기관 이용 여건
- 파견 관리자나 기술자의 현지 체류 비자 획득 및 연장 여건
- 사무실 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비와 임대 조건
- 제조업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가. 지사 개설

이스라엘 내에서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외국인 회사는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 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회사 지점은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내국인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 회사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이스라엘 영사관이 확인한 회사 관계서류(히브리어 번역본이 필요하나 영역본도 가능)
○ 이사명단
○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반 연락관계를 담당할 이스라엘 내 거주자의 주소 및 성명
○ 이스라엘 내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스라엘 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변호사 위임장

나. 현지법인 개설

이스라엘 내에 현지법인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사개설과 마찬가지이다. 우선 현지법인의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할 것인지, 무한책임회사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외국인 회사, 개인회사, 공공회사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u>등기소(Registrar Office)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u>

○ 회사명, 영업목적, 주주의 유한책임이 기술된 정관
○ 출자지분, 지분의 변경 및 양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사항, 감사의 선임, 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
○ 변호사 진술서
○ 이사 명단 등

모든 서류는 히브리어로 작성하되, 화폐는 현지화인 세켈화(NIS)로 표시하고, 자본금을 외화로 등기하는 경우 법무부의 허가와 재무부의 추천이 필요하다.

37. 입지선정

이스라엘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심지역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우선지역 A그룹과 B그룹으로 양분하여 투자지원을 달리하고 있다.

○ A그룹: The Galilee, Jordan Valley, The Negev, Jerusalem (for hi-tech enterprises)
○ B그룹: Lower Galilee, Northern Negev

정부의 입지별 투자장려금 지급 내역

	A지역	B지역
1억 4천만 쉐켈까지의 산업 투자 프로젝트	24%	10%
1억 4천만 쉐켈 이상의 산업 투자 프로젝트	20%	10%
호텔 및 여타 숙박업소 투자	24%	10%
여타 관광 투자 프로젝트	15%	-

주 1: 대미 달러 환율: NIS4.5/1U$
주 2: 이스라엘 상공노동부 소속 투자유치 기관(Israel Investment Promotion Center)2006년 자료

- 정부의 투자장려금액은 토지개발 비용, 빌딩 신축 비용 그리고 기계 장비 구입가액의 총비용을 아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38. 공장설립

□ 공장설립 지역별 인센티브

이스라엘은 각 산업별로 산업단지가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는 투자 지역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산업 미개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 시 아래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하다.

○ A지역: The Galilee, Jordan Valley, The Negev, Jerusalem(단, 하이텍산업)
○ B지역: Lower Galilee, Northern Negev
○ C지역: A.B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 지역별 인센티브

환급금액은 토지개발, 건물투자금액(C지역 예외), 생산설비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총액에서 일정부분을 환급해주며, 설치비 및 부과지출 비용도 포함된다.

세금환급 승인 날로부터 24개월 이내 환급이 실시되며, 세금환급 승인시점부터 5년 이내에 모든 투자가 종결되어야 한다.

지역구분	A 지역	B 지역
산업 프로젝트 US30.4 백만불 이하	24%	10%
산업 프로젝트 US30.4 백만불 초과	20%	10%
호텔 및 숙박시설 투자	24%	10%
기타 관광산업 투자	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스라엘 투자진흥센터 홈페이지 www.investinisrael.gov.il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Liat Shaham
○ Tel: 972-2-666-2628
○ Fax: 972-2-666-2938
○ e-mail: liat.shaham@moital.gov.il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이스라엘 상공노동부 소속 투자유치 기관
- 외국인 투자 창구 역할
- 홈페이지: www.investinisrael.gov.il

○ Israel Venture Association (IVA)
- 이스라엘 민간 투자유치 기관
- 내국인, 외국인이 현지 투자시 적극적으로 활용함
- 홈페이지: www.iva.co.il
- 연중 1회 정기 간행물 발행: 전체 벤처 캐피탈 펀드 및 투자기업 소개 (구매가: 약 US$150)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이스라엘 상공노동부 소속 투자유치 기관
- 외국인 투자 창구 역할
- 홈페이지: www.investinisrael.gov.il

○ Israel Venture Association (IVA)
- 이스라엘 민간 투자유치 기관
- 내국인, 외국인이 현지 투자시 적극적으로 활용함
- 홈페이지: www.iva.co.il
- 연중 1회 정기 간행물 발행: 전체 벤처 캐피탈 펀드 및 투자기업 소개 (구매가: US$150)

○ BDO
- 이스라엘 민간 투자 컨설팅 기관
- 홈페이지: www.bdo.co.il

41. 노무관리

가. 고용조건/세금

○ 교통비: 매월 버스료 또는 자동차 마일에 따른 주유대 및 감가상각비

○ Recovery Fee: 매년 1회에 걸쳐 보너스. 하루 282세켈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5일분, 2-3년/6일분, 4-10년/7일분, 11-15년/8일분, 16-19년/9일분, 20년 이상/10일분을 지불한다.

○ 보너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말 상기 Recovery Fee와는 별도로 1개월분 보너스를 지불한다.

○ 각종보험
- 고용자: 퇴직충당금 8.33%, 건강보험료 5%, 사고보험료 2.5%
- 피고용자: 건강보험료 5%
- 근로자저축: 피고용자가 원할 경우 6년 단위로 고용자는 급여의 7.5%를 부담하고, 피고용자는 2.5%를 부담하여 가입하며, 피고용자는 가입 3년 후부터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다.
- 휴가: 1-4년/14일, 5년/16일, 6년/18일, 7년/21일, 8년 이후/매년 1일씩 추가 단, 연간최고 28일을 넘지 못함
- 급여조정: CPI(소비자물가 INDEX) 변동에 따라 연간 2회 급여조정
- 병가: 제1일/미지불, 제2-3일/급여의 37.5%, 4-18일/급여의 75%
- 근무복: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월 160-180세겔의 의복 보조비를 지불한다. (공장, 사무실동일조건)
- 유대명절: 선물
- 여성조항: 출산 전 후 3개월간 급여의 75%를 지불하는 유급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 1년간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 세금(전액 피고용자 부담)

○ 소득세
- 급여가 1941세켈미만인 경우 급여의 10%
- 1941-3,890세켈: 20%
- 3,891-10,240세켈: 30%
- 10,241-18,560세켈: 45%
- 18,560이상: 50%

○ 국민보험세(national insurance): 급여의 4.8%
- 보건세: 급여의 4.9%

(자료원 : 이스라엘 연간통계 No.52 표12.12)

나. 인력

○ 총노동자수: 2,536.8천명(2006년 1분기 기준)

- 농업분야: 41.1천명
- 제조업: 396.3천명

- 전력수도분야: 16.8천명
- 건설분야: 135.4천명
- 도소매업: 337.6천명
- 숙박 및 식당업: 124.9천명
- 운송통신창고업: 179.4천명
- 은행보험업: 87.5천명
- 비지니스활동: 344.8천명
- 공무원: 115.8천명
- 교육분야: 322.6천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40.6천명
- 커뮤니티 서비스등: 126.8천명
- 기타: 45.1천명

다. 외국인노동력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건축현장등에서 주요노동력을 제공해 왔으나 이-팔 갈등 이후에는 인도, 중국, 필리핀, 루마니아 등지부터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팔레스타인 근로자들의 이스라엘 내 취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까다로워짐에 따라 급증된 것으로서 건설현장과 농업부문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자국민의 실업률이 2001년 10%대로 증가하게 되자 이스라엘 정부는 과감한 외국인 불법노동자 추방정책을 추진해 자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라. 실업문제

이스라엘은 2006년 7월 기준 실업률이 8.7%로 여전히 높다.

○ 미국 나스닥 경기하락에 따른 이스라엘 경제의 악영향(나스닥 등록 이스라엘 업체 수 120개)
○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갈등과 현지 제조업의 해외이주
○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이다.

이스라엘 노동력 수준은 신기술적응이 가능한 고 수준으로 노동력의 33% 정도가 1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이중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다.

마. 임금수준

임금수준은 학력, 경력, 직종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7,618쉐켈이며 다음은 2006년 5월 말 기준 평균연봉이며 다음은 직종별 2005년 말 기준 평균연봉이며,

- 농업 4,883 쉐켈
- 제조업 10,271 쉐켈
- 전기 및 수도공급업 16,941 쉐켈
- 건설업 6,458 쉐켈
- 금융업 15,001 쉐켈
- 공무원 11.367 쉐켈
- 교육 5827 쉐켈
- 의료 6283 쉐켈

바. 노사문제

노사관계에 관한 법은 매우 정교하며 단체교섭은 이러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법들은 단체교섭권, 근로시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급여차별금지, 출산휴가, 청소년고용, 해직수당, 휴가, 노동법정분쟁등에 관해 규정해놓고 있다. 노사관계는 매우 양호한편으로 파업이나 태업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가 있으나, 민간기업은 대체로 노사분쟁에 시달리지 않고있다. 고용주는 정당한 노사합의사항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소가능하며 파업을 한 근로자는 법적절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협상에 의해 해결되고 법에 호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2주이상의 파업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부는 화해, 조정,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요산업 부문일 경우 정부는 작업복귀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42. 조세제도

가. 조세 별 비중

○ 이스라엘은 막대한 국가건설 자금과 전쟁물자 구입 자금 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조세부담을 감수해 왔다. 세금 부담율은 1986년의 경우 GNP의 52%에 달하여 절정을 보였으며, 그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비중이 큰 간접세로는 관세, 구매세, 부가세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조세징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직접세는 1960년대 초반까지 모든 조세의 4분의 1 이하를 차지하다가 1984년에 전체 조세의 57%까지 이르렀으나 그 이후 감소되어 현재는 조세수입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나. 조세 개요

○ 거주 법인(resident companies)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영업 소득과 자본이득 그리고 이스라엘로 송금된 기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거주 개인(resident individuals)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고용 소득 혹은 영업 소득과 자본 이득 그리고 기타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스라엘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비거주 법인(nonresident companies)과 비거주 개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스라엘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세액은 허용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한 후 순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 세법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주주의 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 소득세법(Income Tax Ordinance)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일정한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방지가 보장된다.
- 회사의 법인세는 일률 과세되며 개인의 소득세는 누진 과세된다. 단, 정해진 경우에 한해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년도(tax year)는 매년 12월 31일에 끝난다.

다. 주요 조세

○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자본이득세
- 토지평가세

○ 거래에 대한 조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및 소비세
- 구매세
- 인지세

○ 재산세

○ 고용세
- 국가보험기금
- 국민건강보험세(1995년 1월 발효)

43.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 개요

이스라엘은 98.5월부터 외환관리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인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투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개인이나 기업들도 해외 은행에 예금구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불 시에도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공히 내외국 통화로 마음대로 지불이 가능하며, 해외송금 제한도 철폐되었다.

나. 환율 제도

이스라엘의 환율제도는 91년 12월에 도입된 것으로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일정수준의 환율 상승 혜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이다. 즉 연간 환율 상승 목표율을 설정, 이에 맞추어 매일의 기준환율을 자동적으로 일정분씩 상승 시키는 것으로서 일일환율은 기준환율의 ±5% 범위 내에서 외환 수급에 따라 정해진다.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현지 생활여건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관계로 전쟁 및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여 비싼 편이며, 한국 식품점등이 없어서 한국인의 생활 여건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나. 주말과 공휴일

종교의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전반에 종교인들의 영향력이 세다. 대표적인 공휴일은 물론이고, 샤밧(금요일 일몰 - 토요일 일몰)에는 대형 쇼핑몰들은 물론이고 구멍가게들도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식당들도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으며, 거리도 한산하다. 이 기간 동안 버스 운행을 하지 않으며, 택시이용 시 할증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자가용이 없으면 외국인들로서는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기가 참 힘겹다.

다. 치안 문제

이스라엘 생활에서 가장 힘드는 부분이 치안문제 이다. 경찰은 주로 테러와 검문에 동원되기 때문에 민생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역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므로 주야를 불문하고 외출은 안전하다. 다만 아랍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소매치기 등에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인 들의 경제사정이 아주 나빠 거의 생존을 위한 구걸이나 소매치기가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테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상가, 호텔, 식당, 버스정류장 등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가능한 대로 버스를 타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 쇼핑과 물가

이스라엘에서 쇼핑을 위해서는 보통 시내나 쇼핑센터까지 가야 한다. 최근에는 대형 쇼핑센터들이 생겨 슈퍼에서부터 하드웨어점, 선물점, 약국, 식당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마. 여가 활동

외국인 관광객이나 성지순례객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한 성지가 좋은 방문처 이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성지보다는 호수나 바다가 선호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바닷가에서 수영과 조깅을 즐긴다. 기호에 따라서는 사막에서 4륜 구동차를 이용하여 사막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골프는 18홀 코스가 텔아비브 북부 30킬로미터 거리의 가이사랴 지역에 1곳 있으며, 텔아비브 교외에 있는 9홀 코스도 18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가 비싸 주말에 플레이를 하려면 $100 정도가 소요된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테니스, 축구, 농구 등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사해와 갈릴리 호수, 남쪽의 에일랏 홍해지방에서의 휴가와 이집트의 시나이도 선호되는 휴양지로 각광 받았었으나 시나이 관광지가 아랍 테러단체의 집중표적이 되면서 이집트 시나이 관광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바. 자녀 교육

아메리칸 스쿨이 텔아비브에 있으나 학비가 연간 $13,000 정도로 비싸 여간해서는 보내기가 힘들다. 텔아비브 남쪽 욥바에 있는 앙그리칸 스쿨도 아메리칸 스쿨처럼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으나 학비가 훨씬 저렴한 반면 규모가 작아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예루살렘에도 영어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있으나 교민들은 경제적 사유 때문에 대부분 일반 히브리어 학교에 취학 시키는 경우가 많다.

텔아비브 대학에서는 영어로 강의하는 과정이 있고, 취학 전 자녀에게는 미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Pre School 3년 과정이 있으므로 추천할 만하다.

사. 집구하기

□ 주택 임차절차

주택은 우선 희망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 복덕방들을 통해서 물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복덕방 서비스는 매우 폐쇄적이다. 미국, 유럽 등지와는 달리 사전에 후보 주택조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리스트나 팜플렛 서비스가 없으며, 임차 희망자가 복덕방과 함께 마음에 드는 조건의 주택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돌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성사 시 해당 복덕방에 지불하는 복비는 월세액의 118%(VAT 18% 포함) 이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 나타나면 가격, 지불조건, 가구/가전제품 등 기본조건에 관해 집주인과 먼저 협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조건을 합의 보아도 세부 계약조항 작성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집주인이 많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 집주인 측 변호사는 히브리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조항들을 내세우며 짜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일일이 번역해가며 대응하기 골치 아프면 이쪽도 변호사를 쓰면 되지만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이 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직접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아 들이는 집주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주택 임차료 지불조건은 3개월 선불, 6개월 선불 등 선불방식이 일반적이며, 집주인이 새로 사 넣어야 할 가구나 가전제품이 많은 경우엔 최초 1년에 한해 1년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주인은 상기 임차료 이외에도 통상 4-6개월 분 임차료 금액에 해당하는 Bank Guarantee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동 Bank Guarantee는 해당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발급되며, Guarantee 기한 내에는 그 돈을 찾을 수 없으며, 은행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보증한다는 공문을 받은 후 보증금 없이 게런티를 해주기도 한다.

이상 신규주택 임차의 경우 "복덕방을 통한 주택물색-주택주인과의 기본협상-계약조항 협상-계약서 서명-입주"까지는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

- ○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 삽입을 막고, Bank Guarantee 조건도 협상과정에서 가능한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주택 입지

주택입지로는 크게 단독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단독 주택은 텔아비브의 북쪽에 접한 Herzliya 지역이 대표적이고, 아파트는 텔아비브시내에 다수가 있다. 다음은 한국 공관, 상사주재원들이 사는 지역의 조건이다.

○ 단독주택(Herzliya 지역)

- Herzliya Pituach: 해변을 끼고 있고 외교관,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 주로 단독 주택이지만 조그만 콘도미니엄도 하나 있음. 주택 월 임차료는 $3,500

- Herzliya B: Herzliya Pituach 동쪽의 Nordau Street를 끼고 2킬로미터 정도 남북으로 좁게 뻗은 지역. 주로 단독주택이지만 연립빌라도 있음. 주택 월임차료는 $3,000 수준

- Green Herzliya: Herzliya B에서 동쪽 내륙으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 주택보다는 아담한 규모의 소수가구 입주 아파트들로 구성. 아파트 월 임차료는 가구/전기제품 비치 수준에 따라 $2,500 수준

□ 아파트(Ramat Aviv Gimel 및 Ramat Aviv 지역)

텔아비브 북부지역의 현대식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린 편의시설이 발달돼 자동차가 1대인 젊은 주재원들이 선호. 주부용 자동차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슈퍼마켓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는 것이 요령임. 아파트 월 임차료는 $2,500에서 $3,000 수준. 텔아비브 대학 인근인 Ramat Aviv에는 유학생 가족들이 선호하는 가격이 싼 아파트도 있음.

□ 가구 및 전기제품

주택, 아파트 공히 furnished, semi-furnished, unfurnished 등 다양하며, 협상여하에 따라 집주인이 필요한 가구, 전기제품을 추가로 넣어주기도 한다. (임차료가 올라감). 따라서 한국에서 가구/전기제품을 많이 가져올수록(주파수문제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은 제외)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편이지만, 주택사정에 따라 예외도 있을 수 있고, 반입하는 이사짐의 가액에 따라 세관당국에 Bank Guarantee도 제공해야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사짐의 경우 이사짐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된 관세액만큼 은행에 현금을 예치하고 Bank Guarantee를 발급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 예치액은 재기간이 끝난 후 해당 이사짐 반출신고에 의거 반환된다.)

□ 자동차

1999.9.1부로 외국인 체류자 자동차 반입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외국인 체류자가 관광 명목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6개월 후 관세(7%)와 VAT(16.5%)만 내고 상대적 고율의 Purchasing Tax(95%)는 매각시점까지 유예 받았었다. 즉 반입자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동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명의이전) 하지 않는 한 무려 95%에 이르는 고율의 Purchasing Tax를 내지 않아도 됐고, 혹 이스라엘 국내에서 매각한다 해도 사용연한에 따라 유리해진 세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한국인 체류자들이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를 반입하였었다.

그러나 '99. 9.1. 법이 개정되면서 동 유예조치는 1999.3.1. 이전 반입차량에 한정되고, 1999.3.1. 이후 반입차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절차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 최초 6개월간은 제세 유예

- 6개월 경과 시점에 관세(7%), 부가가치세(17%), Purchasing Tax(95%) 해당 금액에 대한 6개월 기한의 Bank Guarantee를 예치해야함.

- 그 6개월후 즉 반입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세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예치했던 6개월 시한의 Bank Guarantee는 반환 받음 상기 제세를 납부한 차량은 무기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이스라엘 국내 매각도 언제든지 가능함

- 이에 따라 1년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굳이 한국에서 자동차를 반입하는데 따른 merit가 별로 없어졌다.

아. 정착금

이스라엘은 초기 정착금이 많이 드는 곳이다. (다음은 예시임)

○ 주택 임차료: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치 선불방식 계약
○ 복덕방수수료: 월임차료의 100% + 18%(부가가치세)

○ Bank Guarantee(주택): 통상 4-6개월분 임차료 해당액을 요구. 은행에 동액만큼 현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큼. 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주택계약 협상의 관건.

○ Bank Guarantee(이사짐): 관세집행 유예를 위한것으로 이사짐에 따라 상이

○ 자동차 (신차구입시 최소금액 / Auto)
- 현대 Sonata 2.0 - 약 $26,000
- 현대 Lantra 1.8 - 약 $23,000
- 대우 Leganza 2.0 - 약 $27,000
- 대우 Nubira 1.6 - 약 $21,000
- VW Passat 1.8 - 약 $34,000
- VW Passat 1.6 - 약 $30,000

○ 자동차 보험: $1,300-$1,500
○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300-$400
○ 기타 호텔비 등 초기 생활비 및 가구비품 구입비

자. 이스라엘 학교 및 학생 현황

○ 히브리어학교
- 초등학교 1,960개(총학생수573,225명)
- 중등학교 500개(총학생수263,460명)
- 고등학교 1,156개(총학생수188,906명)
- 대학교: 727개(총학생수 284,284명)

○ 아랍어학교
- 초등학교 454개(총학생수211,917명)
- 중등학교 267개(총학생수69,089명)
- 고등학교 138개(총학생수49,189)
- 대학교: 없음

(자료원 : 이스라엘중앙통계국 2005(06년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표8.12)

차. 학제

○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제

카. 교육 여건

○ 이스라엘의 학제는 1-6-3-3년의 총 13년 의무교육 기간을 가짐.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5세에서부터 6세까지 1년간의 유치원 의무교육이 특징적이다.

○ 유치원 이전에는 pre-school이 있으며, 외국인 자녀들은 미국대사관 부설 학교에 주로 보내며, 수업료는 연간 $3,000이지만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일이 많으므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보통학교 이외에 영재교육기관, 예술전문학교, 지체부자유학교 등이 있다.

○ 텔아비브 인근에 American School이 있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이 학교에는 이스라엘 거주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자녀도 상당수 영어로 교육을 받고 있다.

○ 고등교육기관으로는 8개의 대학교 및 7개의 분교와 음악, 미술, 디자인 체육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전문학교가 있다.

○ 예루살렘 주재 한국인은 주로 현지학교에 취학시키고 있으나, 텔아비브 주재 한국인들은 텔아비브 북방 15Km에 소재한 American School 취학시키고 있다. 동 학교는 중동 일원의 동일 학교 중에서는 교육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교육비는 $15,000 수준으로 비싸다. 입학시에는 소정의 입학금($1,400) 외에는 별도의 기부금 등이 없어서 부담이 덜하다.